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N EFFECTIVE STRATEGY FOR INCORPORATING NEWCOM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AMAZING GRACE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YOUNGKU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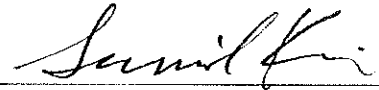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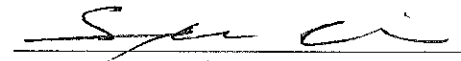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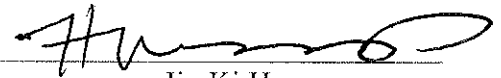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 Il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January 24, 2014

**AN EFFECTIVE STRATEGY FOR INCORPORATING  
NEWCOM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AMAZING GRACE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KUK KIM**

JANUARY 2014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큰은혜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김 영 국

2014년 1월

##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Incorporating Newcom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Amazing Grace Presbyterian Church

Youngkuk Kim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concern of this thesis is the vitalization of Korean churches given the problem of newcomers leaving the church rather than being incorporated. This thesis seek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newcomers nurturing program and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settlement of newcomers: filling the gaps in the existing newcomers nurturing program, establishing an organized system, and paying more continuous attention to nurturing newcomers.

The introduction gives a brief explanation of the motive and purpose of this thesis, as well as the extent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2 defines “newcomers” in biblical and pastoral ways, giving categories of newcomers and examining the theological, bibl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nurturing newcomers.

Chapter 3 introduces newcomers nurturing programs in detail by looking at contemporary programs in a number of Korean churches. In chapter 4, the thesis selects the three churches that run the best programs, and it examines their contents in detail.

Chapter 5 focuses on the case of the Amazing Grace Presbyterian Church. After introducing the church itself, it analyzes the church’s current situ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thesis provides suggestion for improvement. Chapter 6 suggests new ways to invigorate the settlement of newcomers, correct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rogram in the Amazing Grace Presbyterian Church.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previous chapters and presents the opinion that Korean

church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nurturing newcomers in order to invigorate their churches.

Theological Mentors: Sun Il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쓰기까지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풀러 목회학 박사 과정은 지난 목회현장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학문적으로 정리할 뿐 아니라 목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내어놓기까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논문 지도를 해주신 김선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관심과 배려와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태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을 마치기까지 귀한 강의를 해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과 학교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풀러 목회학 박사 과정을 소개해 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사랑하는 이규호 담임목사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하는 기간 동안 기도로 함께 한 큰은혜교회 동역자들과 자료로 도움을 주신 예능교회 이재겸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본 과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하신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사랑하는 어머님과 장인장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헌신과 내조로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기도하며 격려해준 사랑하는 아내 정은진과 사랑하는 아들 우진, 사랑하는 딸 우인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4년 1월 김영국

##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 1  |
|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       | 6  |
| 제 2 장 새 가족에 대한 이해 .....        | 7  |
| 제 1 절 새 가족에 대한 정의 .....        | 7  |
| 1. 새 가족에 대한 이해 .....           | 7  |
| 2. 새 가족에 대한 성경적 이해 .....       | 8  |
| 3. 새 가족에 대한 목회적 이해 .....       | 10 |
| 제 2 절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이해 .....     | 11 |
| 1. 새 가족 양육의 정의 .....           | 11 |
| 2. 새 가족 양육의 목적 .....           | 12 |
| 3. 새 가족 양육의 과정 .....           | 13 |
| 4. 새 가족 양육의 성경적 이해 .....       | 16 |
| 5. 새 가족 양육의 역사적 이해 .....       | 19 |
| 제 3 장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 비교 연구 ..... | 26 |
| 제 1 절 알파코스 .....               | 26 |
| 1. 알파코스의 기원 .....              | 26 |
| 2. 알파코스의 의미 .....              | 28 |
| 3. 알파코스의 특징 .....              | 29 |
| 4. 알파코스의 전도원리 .....            | 29 |
| 5. 알파코스의 평가 .....              | 30 |
| 제 2 절 바나바 사역 .....             | 31 |
| 1. 바나바 사역의 기원 .....            | 31 |

|                               |    |
|-------------------------------|----|
| 2. 바나바 언물 이해 .....            | 31 |
| 3. 바나바 사역의 이해 .....           | 32 |
| 4. 바나바 사역의 평가 .....           | 33 |
| 제 3 절 엠마우스(Emmaus) .....      | 35 |
| 1. 엠마우스의 기원 .....             | 35 |
| 2. 엠마우스의 구성 .....             | 35 |
| 3. 엠마우스의 진행방법 .....           | 37 |
| 4. 엠마우스의 평가 .....             | 38 |
| 제 4 절 멘토링 .....               | 39 |
| 1. 멘토링의 기원 .....              | 39 |
| 2. 멘토링의 이해 .....              | 41 |
| 3. 멘토링의 형태 .....              | 42 |
| 4. 멘토링의 필요성 .....             | 43 |
| 5. 멘토링의 평가 .....              | 45 |
| 제 4 장 새 가족 정착 사역의 사례 검토 ..... | 47 |
| 제 1 절 신앙교회 .....              | 47 |
| 1. 교회 소개 .....                | 47 |
| 2. 새 가족 양육의 실제 .....          | 48 |
| 3. 평가 .....                   | 51 |
| 제 2 절 선창교회 .....              | 52 |
| 1. 교회 소개 .....                | 52 |
| 2. 새 가족 양육의 실제 .....          | 53 |
| 3. 평가 .....                   | 56 |
| 제 3 절 예능교회 .....              | 56 |
| 1. 교회 소개 .....                | 56 |
| 2. 새 가족 양육의 실제 .....          | 57 |
| 3. 평가 .....                   | 62 |



|                                      |    |
|--------------------------------------|----|
| · 제 4 절 종합정리 .....                   | 62 |
| 제 5 장 큰은혜교회의 소개와 현황 .....            | 65 |
| 제 1 절 지역 상황 .....                    | 65 |
| 1. 지리적 여건 .....                      | 65 |
| 2. 주위 인구 분석 .....                    | 67 |
| 제 2 절 큰은혜교회의 역사와 상황 .....            | 67 |
| 1. 큰은혜교회의 역사 .....                   | 67 |
| 2. 큰은혜교회의 비전 .....                   | 69 |
| 3. 큰은혜교회의 상황 .....                   | 70 |
| 제 3 절 큰은혜교회 새 가족부 .....              | 71 |
| 1. 새 가족 정착 사역의 목적 .....              | 71 |
| 2. 새 가족 정착 사역의 내용 .....              | 72 |
| 제 4 절 큰은혜교회 새 가족 현황 .....            | 77 |
| 제 5 절 큰은혜교회 새 가족 양육의 원리 .....        | 79 |
| 1. 새 가족 양육 원리 .....                  | 79 |
| 2. 새 가족 양육 원리의 구현 .....              | 80 |
| 제 6 절 큰은혜교회 새 가족 정착 교육의 제한 요소들 ..... | 80 |
| 1. 새 가족 섬김이 교육 부재 .....              | 82 |
| 2. 새 가족학교 교육공간 부재 .....              | 82 |
| 3. 충분한 새 가족학교 기간 부족 .....            | 83 |
| 4. 새 가족학교 기간 아이돌봄 프로그램의 부족 .....     | 84 |
| 제 6 장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 ..... | 85 |
| 제 1 절 새 가족부 운영 개선 방안 .....           | 85 |
| 1. 새 가족학교 개선 방안 .....                | 85 |
| 2. 새 가족 양육을 위한 공간 마련 .....           | 92 |
| 3. 새 가족 중심의 환경개선 .....               | 94 |

|                           |     |
|---------------------------|-----|
| 제 2 절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 ..... | 96  |
| 1.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 .....  | 96  |
| 2.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 ..... | 97  |
| <br>                      |     |
| 제 7 장 결론 .....            | 99  |
| 제 1 절 연구요약 .....          | 99  |
| 제 2 절 제언 .....            | 101 |
| <br>                      |     |
| 참고 문헌 .....               | 103 |
| <br>                      |     |
| Vita .....                | 106 |

## 표 목 차

|  |    |
|--|----|
| <표 1> 바나바 양육을 위한 훈련교재 내용 .....               | 33 |
| <표 2> 바나바 사역 교재 내용-새 가족 안내서 .....            | 34 |
| <표 3>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의 단계 .....                 | 35 |
| <표 4> 엠마우스 양육 단계의 15가지 주제 .....              | 36 |
| <표 5> 엠마우스 성숙 단계의 15가지 주제 .....              | 37 |
| <표 6> 새생명반 주차별 주제 .....                      | 50 |
| <표 7> 선창교회 새 가족부 조직 .....                    | 55 |
| <표 8> 선창교회 새 가족부 양육 내용 .....                 | 56 |
| <표 9> 복음학교 교육내용 .....                        | 62 |
| <표 10> 일대일 양육 과정 교육내용 .....                  | 63 |
| <표 11> 관악구의 인구 증가 및 각 동별 인구분포도 .....         | 66 |
| <표 12>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교육일정(주일별) .....          | 74 |
| <표 13> 큰은혜교회 새 가족교육 지원팀 현황 .....             | 74 |
| <표 14> 큰은혜교회 새 가족교육 교육일정(주차별) .....          | 75 |
| <표 15>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수료식 일정 .....             | 76 |
| <표 16>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소감 나누기 .....             | 77 |
| <표 17> 큰은혜교회 새 가족 등록 현황과 정착율(최근 6년간) .....   | 78 |
| <표 18>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수료 현황과 정착율(최근 6년간) ..... | 79 |
| <표 19> 큰은혜교회 새로운 새 가족학교 계획표 .....            | 88 |
| <표 20> 큰은혜교회 새 가족 섬김이교육 계획표 .....            | 89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새 가족 정착률과 정착 이유 ..... | 2  |
| <그림 2> 신앙교회 양육시스템 .....      | 49 |
| <그림 3> 예능교회 크로스 양육시스템 .....  | 60 |
| <그림 4> 예능교회 섬김반 .....        | 61 |
| <그림 5> 큰은혜교회 새 가족 등록단계 ..... | 73 |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연구 목적

1884년 서구의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성장이다. 또한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2013년에 제 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렇듯 한국 기독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으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그 역할과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개신교 인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 왔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으며, 개신교의 절대적 성도수도 늘어 이제 천만 성도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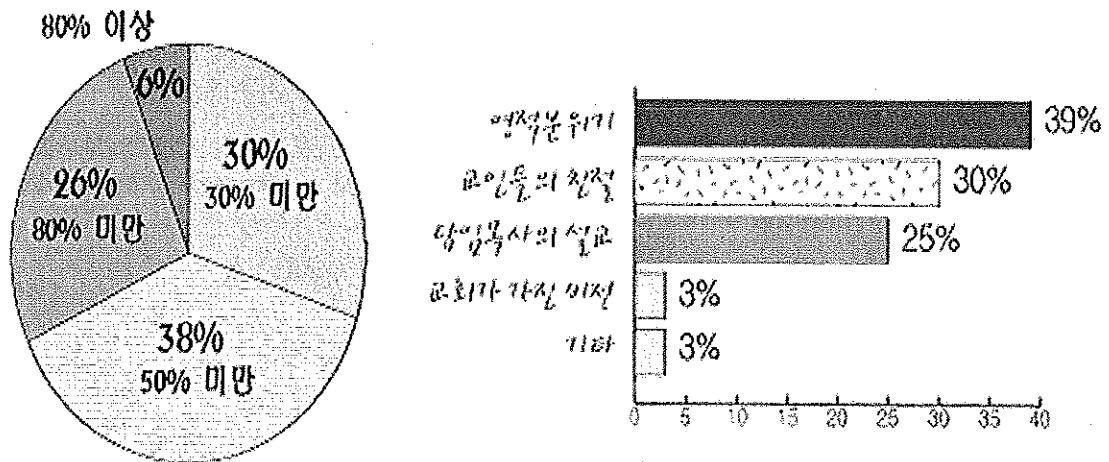
이러한 개신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개신교 침체기의 이유는 종교를 가지려는 절대적 인구수의 감소와 사회적으로 개신교의 위상약화로 인해 종교를 가지고자 하여도 개신교를 선택하지 않는 인구수의 증가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교회 성장의 정체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함께 발전하지 못하고 과거

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는 여러 의견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에 더하여 한 가지 더욱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sup>1)</sup>의 지도와 양육의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용목회연구원의 조성의는 서울·경기지역 216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새 가족 정착률이 50퍼센트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8퍼센트에 육박한다고 밝히고 있다.<sup>2)</sup>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수많은 새 가족들이 교회를 정착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또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은 새 가족 정착율과 정착 이유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새 가족 정착율과 정착 이유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 먼저는 처음으로 교회

1) '새 신자'와 '새 가족'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새 신자'는 종교를 처음으로 가지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라 정의하고, 다른 교회에서의 수평이동도 포함되는 용어인 '새 가족'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2) 김병국, "교회 성장의 보고, 새 가족 관리 철저히 하라. ① 새 가족 맞을 준비됐다," 기독교신문, 2007년 3월 12일 www.kidok.com

를 찾아 종교를 가지게 되는 새 가족이다. 이들은 교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부족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은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적 이동의 새 가족을 언급 할 수 있다. 요즘처럼 기존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는 수평이동이 활발한 추세에서, 새로이 교회를 찾아온 이들에 대한 지도와 양육은 필수적이다. 이미 믿은 성도라고 방치하기보다 '철새'교인에서 '헌신자'로 정착시켜, 수평이동에 따른 교회성장과 교회간의 양극화 현상을 하루 속히 없애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 가족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새 가족의 경우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처음 찾아온 이들에 대한 교육에 있다. 새 가족의 경우 교회를 처음 접하기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소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새 가족의 경우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알고자하는 새 가족들에게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도와주려는 기존 성도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새 가족 뿐만 아니라 기존성도들의 노력이 더해 질 때 새 가족들의 정착이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나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해 온 새 가족도 있다. 이러한 새 가족의 경우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에 상관없이 위에서 언급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새 가족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마치 교회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루어지게 된다.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온 새 가족의 경우 기초적 교육이 아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돌봄이 더욱 필요하다.

위의 두 부류의 새 가족 유형을 통해서 먼저는 새 가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모든 새 가족을 한 울타리에서 획일화 된 교육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며 구분 짓는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회에서 새 가족을 교육할 때 여러 프로그램들 속에서 각 개교회에

· 맞는 프로그램의 확립과 새 가족 교육 이후의 관리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현재 많은 교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것이 개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대형 교회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을 아무런 평가나 분석 없이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와서 개 교회에 적용하고 있기에 많은 문제가 된다. 이렇듯 너무나도 많은 새 가족 양육프로그램과 정착프로그램들 속에서 각 교회들은 본인들의 교회사정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에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가족 정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이 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이후 새 가족의 정착을 위한 돌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구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더 이상의 돌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이 새 가족들의 교회 정착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는 90년대 이후 이어진 성장위주의 교회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질적 성장보다는 외적,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교회는 많은 새 가족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전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나 정착 그렇게 불러들인 새 가족에 대한 적절한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성장의 방법론에만 치중한 나머지 무엇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개 교회마다 교세를 늘리고 교인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나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많은 수의 새 가족을 교회로 부르는 것에는 성공하고 있으나, 이 새 가족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적 팀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새 가족들을 맞아들이고 있기에 많은 새 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새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신 이웃이며, 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드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다.<sup>4)</sup> 새 가족은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존재이다.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우리에게 있는 양도 중요하지만

3) 신재승,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 가족 양육”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1.

4) 이정희,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2.



우리에 있지 않는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쓰시는 모습이 우리가 새 가족을 바라보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새 가족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성장을 위한 사명이며,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면서 필연적인 요소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한 영혼을 천하처럼 여기며 소중히 다룰 줄 알며 보살필 수 있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이 본 논문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회 현실에 비추어 성경적인 전도와 함께 새 가족을 잘 양육하고 정착의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을 접목하여 새 가족부를 구성하며 새 가족을 철저히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새 가족의 개 교회 정착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육과 정착의 두 가지 중요한 관점으로 새 가족 양육을 위해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새 가족을 양육한다는 것은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됨을 확인하는 것이다.<sup>5)</sup> 그러하기에 먼저는 프로그램으로 새 가족에게 다가가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설명하며, 개 교회의 교회된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 교회의 특성과 지리조건, 그 교회에 찾아오는 새 가족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교회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새 가족들에게 알리고 소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정착시켜 하나님나라의 참된 성도로 성숙시켜 나가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요,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새 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새 가족 정착 사역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큰은혜교회 고유의 새 가족 정착방법과 전도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하고 응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새 가족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신재승,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 가족 양육,”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큰은혜교회의 모습과 현황에 그 기반을 두고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그에 필요한 여러 상황과 요소들을 제시하며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새 가족들을 정착시키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 한국 교회의 새 가족 정착의 문제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2장에서는 새 가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새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본 새 가족의 이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새 가족 양육에 대해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이해와 역사적인 이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3장에서는 현재 여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 가족 정착 프로그램들 중 네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새 가족 정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세 개의 교회를 소개하며,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사역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큰은혜교회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전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부서를 돌아보며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그동안 큰은혜교회에서 사역하며 살펴본 바에 의해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앞에서의 연구 요약과 함께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 논문을 맺을 것이다.

## 제 2 장

### 새 가족에 대한 이해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새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역을 감당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새 가족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살펴보고, 새 가족에 대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새 가족을 바로 이해하고자 한다.<sup>6)</sup>

#### 제 1 절 새 가족에 대한 정의

##### 1. 새 가족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새 가족이란 명칭은 새 신자, 초신자, 태신자 등 여러 가지 명칭과 혼용되고 있으며, 개교회마다 새 가족에 대한 의미와 대상이 달라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sup>7)</sup>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새 가족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를 가리키는 '원입교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8)</sup>

박원영은 새 가족을 다섯 종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

6)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새 신자'와 새롭게 교회에 등록을 한 '새 가족'을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필자는 '새 신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새 가족'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도, 2000), 227-235.

7) 예장 통합의 대표적인 교회인 명성교회에서는 새 가족을 '등록자,' 안산동산교회에서는 '새 교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새 신자,' 라고 부르고 있다.

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173.

은 사람으로 '완전 초신자'들이고, 둘째는 어릴 때 예수를 믿다가 다시 신앙을 찾은 '회심자'들이고, 셋째는 어떤 일로 인해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낙심과 좌절로 고민하다가 돌아온 '낙심자'들이고, 넷째는 다른 종교 등을 믿다가 개종한 '개종자'들이고, 다섯째는 직장과 사업, 학교로 인해 지역을 이동했거나 시대가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신도시로 이주한 '이동자'로 구분하고 있다.<sup>9)</sup>

김춘실은 새 가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둘째는 타교회에 출석하다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교회를 옮긴 자들, 셋째는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던 비활동적인 신자들로 구분했다.<sup>10)</sup>

엄순희는 새 가족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교회에 출석한 자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신앙으로 익숙하지 않은 자들, 셋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하나 이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교회로 처음 나온 자들로 구분한다.<sup>11)</sup>

이처럼 새 가족이란 명칭은 정확한 대상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새 가족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먼저는 처음 신앙을 위해 교회를 처음 방문한 자들, 다음으로 교회는 다녔었지만 이 교회는 처음 방문한 자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새 가족들을 모두 새 가족이란 개념에 포함하며, 이들 모두가 새 가족 양육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에게 양육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새로 옮긴 자들도, 새로운 교회의 환경과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새 가족 양육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착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2. 새 가족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에서 새 가족은 새로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3:3; 고전 3:1; 요일 2:12-14), 목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사랑과 음식과 보호와 훈련을 받아야 할 영적인 신생아를 말한다.

9) 박원영, *새 가족 탄생교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3), 3.

10) 김춘실, *새 신자를 알아야 새 신자를 키운다* (서울: 콤파출판사, 1999), 22-25.

11) 엄순희, "새 신자 바로보기," *교육목회*, 2000년 봄호, 44-45.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가족에 등록된다. 그리고 그 후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게 되고, 새 가족으로서 공동체 일원이 된다.<sup>12)</sup> 또한 구약성경에 나오는 새 가족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회심했던 이방인들이 바로 새 가족이다(사56:6-7)<sup>13)</sup>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공생애 기간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수의 사역에서도 새 가족에 대한 이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 기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새 가족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중한 문제임을 강조하셨다. 누가복음 14장 12-14절에 나오는 잔치의 초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또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했으며, 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했으며, 이들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셨다. 이는 사실상 오늘날 새 가족 양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새 가족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최초 이방인 새 가족은 고넬료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12)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헌신의 표시이기에 구약성경에 기록된 새 가족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J.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운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60.

13) 엄순희, “새 신자 바로보기,” 45.

14) 명성훈,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제네시스21, 2004), 11-13.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고넬료는 세례를 받게 되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초대교회 이방인들은 성령과 세례를 받고 교회의 공동체 원으로 새 가족이 되었다.<sup>15)</sup> 신약성경은 이러한 새 가족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책’(요 20:31)임을 알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딤후 3:16)임을 깨닫게 해준다.<sup>16)</sup>

사도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킴으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르게 해석할 것을 권면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언급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새 가족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베후 3:16).<sup>17)</sup>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아이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아직 교회 안에서의 생활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요한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 선과 악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때를 분별치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새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요일 2:12-14).

### 3. 새 가족에 대한 목회적 이해

목회적 관점에서 새 가족은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의 영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들은 아직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기독교 문화와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들은 신령한 자들과는 달리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새 가족에 대한 배려와 구체적인 돌봄이 목회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들이 교회생활에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이들이 어떠한 영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15) 명성훈,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전략*, 46.

16) 엄순희, *새신자바로보기*, 46.

17) 본문에 기록된 ‘무한자들’의 헬라어는 부정 접두어를 포함한 단어로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거나 사도들로부터 영적 진리들을 배우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 강병도 편, *호크마성경주석 9: 히브리서-베드로후서* (서울: 기독교출판사, 2000), 553.

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sup>18)</sup>

이용남은 새 가족 목회의 필요성에 대해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새 가족 목회는 주님의 명령이다. 둘째, 새 가족 목회는 영적 사산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새 가족은 아기신자이기에 어른 식탁에서 굶기지 말아야 한다. 넷째, 신자는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새 신자 목회가 필요하다. 다섯째, 새 가족 목회는 교회성장의 비결이다. 여섯째, 새 가족 목회는 전도자에게 의욕을 준다.<sup>19)</sup>

## 제 2 절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이해

본 연구자는 앞에서 새 가족의 개념을 처음 교회에 나와 등록한 자들과 기존의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 등록한 자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본 절에서는 새 가족에게 올바른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새 가족 양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새 가족 양육을 성서적,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새 가족 양육의 정의

새 가족 양육은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해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sup>20)</sup>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 보살핌을 받아 장성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엡 4:1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 가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새 가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어린양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양육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여야만 한다.

새 가족 양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형식은 새 가족과 영적세계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새 가족을 어린아이로 언급하기 때

18) 강병도 편, *호크마성경주석 9: 히브리서-베드로후서*, 46-47.

19) 이용남, *교회성장을 위한 새 신자 목회* (상) (서울: 도서출판 돌곶이, 2000), 166-168.

20) 새 가족목회연구원, *새 가족목회 세미나* (서울: 새 가족목회연구원, 1997), 35.

문이다. 새 가족은 육적인 세계에서처럼 자신을 돌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 초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sup>21)</sup>

쿠네(Kuhne)는 새 가족을 양육하는 일은 집단적인 새 가족 양육과 개인적인 성경공부, 그리고 개인적 새 가족 양육의 세 가지 기본적인 양식을 관찰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첫째, 집단적 새 가족 양육은 새 가족을 양육하는 일이 개교회나 친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양육은 새 가족 성경공부반이나 그와 비슷한 교회의 사업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는 양식을 취한다.

둘째, 개인적인 성경공부는 새 가족 자신이 성경을 공부하는 활동으로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통신과정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개인적 새 가족 양육은 성숙한 신자가 새 가족의 양육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새 가족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새 가족 양육은 집단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관계에서 진행될 수 있다.

## 2. 새 가족 양육의 목적

예수는 공생애 기간에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새 가족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양육을 통하여 사역하셨다. 예수의 새 가족 양육에 대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고, 두 번째 목적은 새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김덕수는 새 가족 양육의 목적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새 가족 양육이 교회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 가족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어야 한다. 둘째는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의 차원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 교회 차원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습관에 의해

21) 사랑, 보호, 양식, 훈련 등이 어린아이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필요한 요소이다(요 3:3; 고전 3:1; 벰전 2:2; 요일 2:12-14).

22) 새 가족목회연구원, *새 가족목회 세미나*, 21.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족으로 살고 나아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새 가족이 개교회주의나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보게 하고 또한 지역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는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sup>23)</sup>

옥한흠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며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양육은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sup>24)</sup>

고용수는 교회 양육의 지향점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했다.<sup>25)</sup>

종합하면, 새 가족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건강한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3. 새 가족 양육의 과정

새 가족은 전도, 양육, 정착의 과정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원이 된다. 전도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새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고, 양육은 전도를 통해 얻게 된 새 가족을 교육을 통해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은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새 가족이 교회의 공동체원이 되게 하는 과정이다.

#### 가. 전도

전도는 새 가족 유입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이 있는데, 명성훈은 이러한 전도의 방법으로 현존전도, 선포전도, 설득전도, 능력전도

23) 김덕수, "새 신자를 알면 새 신자 정착이 보인다," *교회성장*, 2009년 3월호, 18-19.

2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191-193.

25) 고용수, "새 교육 과정의 방향," *교육교회*, 1997년 10월호, 2-21.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6)</sup>

박종기는 새 가족 유입을 위한 10가지 전략으로 첫째, 교회를 최대한 많이 홍보하라, 둘째,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가 되어라, 셋째, 교회를 사랑하라, 넷째,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라. 다섯째, 새 가족을 최고의 손님(vvip)으로 대접하라, 여섯째,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전도대를 파송하라. 일곱째, 총동원주일을 통해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라. 여덟째, 새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아홉째, 현대적인 교회홍보에 신경을 쓰라. 열째, 교회성장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라.<sup>27)</sup>

글렌 마틴(Glen Martin)과 개리 매킨토시(Gary Mcintosh)는 전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새 가족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현장전도, 전파전도, 설득전도, 발전전도, 그리고 생산전도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전도 형태는 비신자를 청취자로, 신자로, 학습자로 제자로 삼게 된다.<sup>28)</sup>

교회가 새 가족을 얻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교회로 변화해야 한다.<sup>29)</sup> 특별히 교회는 전도중심적인 교회로 전환을 해야 하며,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전도해야 한다.

#### 나. 양육

새 가족을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다.

모어(Waylon B. Moore)는 새 가족 양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새 가족 양육은

26) 현존전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것이며, 선포전도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설득전도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지역교회의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능력전도는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도이다.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87-91.

27) 박종기, *새 신자를 정착시켜라* (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8), 85-89.

28) 현장전도는 비신자들이 필요에 의한 만남의 사역들을 통해 따뜻함과 기독교를 수용하는 느낌을 갖고 첫 접촉을 갖는 것이다. 전파전도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것이고, 설득전도는 설득을 통해 청취자에서 신자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나눔으로써 가능해진다. 발전전도는 새 가족이 교회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제자화에 초점을 맞춘다. 생산전도는 심고, 물주고, 거두게 된다. Gary Mcintosh, Glen Martin, *새 신자를 찾아라 지켜라*, 김명남 역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0), 83.

29)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72-76.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고, 성숙하게 하며, 번식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0)</sup> 스미스(Ron Smith)는 새 가족이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기 위한 단계로 일곱 가지 건반을 제시했다.<sup>31)</sup>

양육을 통해 새 가족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역이 전도에 집중되면 양육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을 통해 새 가족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전도는 열매 없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육은 새 가족 목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명성훈은 새 가족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새 가족을 영적 아이를 다루는 심정으로 양육해야 하고, 둘째, 강의식 교육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일대일 양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넷째 다양한 환경과 방법을 통해 양육하고,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양육을 해야 한다.<sup>32)</sup>

이처럼 체계적인 새 가족 양육은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sup>33)</sup>

#### 다. 정착

전도와 양육을 통해 새 가족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정착이다. 정착을 통해서 새 가족이 교회의 지속적인 공동체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덕수는 새 가족 정착을 새 가족이 새생명을 얻게 하고, 새 관계성 속에 들어가며, 헌신과 희생의 정신에 기초한 섬김과 사역을 통해 새 삶을 형성하는 것이 일원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새 가족 정착의 기준은 새 가족이 교회의 교재권 속에 소속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sup>34)</sup>

30) Waylon B. Moore,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19.

31)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둘째는 성경지식을 쌓아서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것, 셋째,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는 것, 넷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 다섯째, 성경대로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 여섯째, 다른 기독교인과 교제하는 것, 일곱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Ron Smith, *새 신자 양육지도*, 편집부 역 (서울: 보이서사, 1993), 17-18.

32) 명성훈,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전략*, 117-130.

33) 모어가 제시하는 네 가지 방법은 개인접촉, 개인기도, 개인적인 파송 그리고 개인적인 통신 등이다. Moore,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37.

34) 김덕수, "새 신자를 알면 새 신자 정착이 보인다," 16-17.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새 가족에 대한 업장과 관심을 변화시켜야 한다. 먼저 교회는 기존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원한다면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 가족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가 변화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sup>35)</sup>

이처럼 정착은 새 가족이 교회의 공동체원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 가족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새 가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 4. 새 가족 양육의 성경적 이해

##### 가. 구약시대의 새 가족 양육

구약시대 새 가족 사역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 가족 교육을 뜻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의 근원은 결국 유대인의 교육토양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 신앙전통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 가족과 기성신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예식을 행하고 계약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이 시작된다. 여기서 새 가족 교육의 시작을 주로 유대인의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 행해진 어린이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참 신앙인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교육시켰다.<sup>36)</sup>

중장시대에는 뚜렷한 형식의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의식을 통해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그들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책임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고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sup>37)</sup>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

35) 김덕수, "새 신자를 알면 새 신자 정착이 보인다," 46.

36) 구약시대 새 가족 사역의 특징은 할례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생후 8개월 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가족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증명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헌신의 표시였다. J.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60.

37) 김기현, "새 가족 사역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33.

나님의 언약들에 대해 배웠으며, 그 언약이 신앙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가족에 등록된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게 되고, 새 가족으로서 공동체 일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가족이 되고자 했던 이방사람들 역시 할례를 행함으로 새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보내셨으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율법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교육에 핵심이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쉘마(Shema)로 불리는 교육선언을 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종교교육의 절대성을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기를 히브리인의 교육이라고 하고, 후기를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포로기 이전의 교육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육이 있다. 첫째, 가정교육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은 교육의 기본 장소이고 부모는 엄격한 교사로서 교육적 책임을 졌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은 율법교육이며 생활교육이며 또한 민족교육이었다. 둘째, 장년교육이다. 포로이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았다.<sup>38)</sup>

#### 나. 신약시대의 새 가족 양육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런 봉사로 전도(kerygma)와 교육(didache)이다. 예수는 위대한 전도자요 동시에 위대한 교사로 이 두 가지 사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예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으며, 회개하고 돌아온 새 가족들을 양육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셨다. 신약성경을 근거로 하여 예수의 새 가족 교육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9)</sup>

38) Lewis Joseph Sherrill, *기독교 교육의 발생*, 이숙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0-21.

39) Moore,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38-40.

첫째, 생활의 본을 보이는 교육이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삶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 교육하셨다(마 4:19; 11:29; 요13:15). 예수가 사용한 이러한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방법이다.

둘째, 생활 현장에서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교육과 관계된 사역을 하셨다. 예수는 장소를 초월하여 길가에서나, 해변에서나, 광야에서나 집안에서나, 그리고 회당과 성전 등 어느 곳이든지 친밀하게 거닐고 대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가르쳤다.

셋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했다. 예수의 방법은 형식적이기 보다는 비형적이며 자연적인 방법이었다. 방식도 다양하게 대화를 통해, 면담을 통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생활에서 직접 대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교육했다. 예수의 방법은 관념적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다섯째,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함께 생활하심으로 교육했다. 예수는 직접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셨다.

여섯째, 개인의 영혼구원을 위해 교육하셨다. 예수에게 있어 우선적인 교육의 초점은 개인이었다. 그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강조하셨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고, 한 영혼이 양심에 따라 행하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가르치셨다.

일곱째, 영적 성숙 단계에 따라 교육하셨다. 예수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개인별 영적 성숙 단계를 고려하여 가르치셨다. 그가 자주 사용했던 비유의 방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아직 천국 설명을 이해할 정도의 영적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는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덟째, 상담을 통해 교육하셨다. 예수는 개인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문제가 있는 이들을 찾아 가서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담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예 중에 하나이다.

아홉째,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교육하셨다. 예수는 개인과의 만남을 중요시하여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를 통해 훈련된 제자들을 활용하셨다.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 5.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역사적 이해

### 가. 사도시대 새 가족 양육<sup>40)</sup>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사도시대의 새 가족 양육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질병이라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면서 앓은뱅이가 된 새 가족이 등장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한다(행 5장). 또한 8장에서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며, 하나님께 관심은 있으나 복음은 깨닫지 못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도 등장한다. 이 뿐만 아니라 회심을 체험했던 핍박자 사울, 백부장 고넬료, 서기오 바울, 자주장사 루디아 등 사도시대 교회의 다양한 새 가족들이 등장한다.

사도전승에 따르면 새 가족 양육은 유대교의 뿌리에서 발전하여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춘 것으로 2세기 후반부터 교육제도 등장하였다. 당시 교회는 새 가족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복음화 단계, 세례교육 단계, 세례와 성만찬 참석, 그리고 세례 후 교육단계이다.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아 나온 자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게 되면 세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catechumenate)에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후견인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표현한다. 그러면 담당교사는 그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한 후에 그 사람은 정식으로 세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세례교육과정을 밟게 된

40) 본 연구에서 사도시대는 예수의 시대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의 시기로 정의한다.

다. 이 과정은 6개월에서 3년 동안 지속되어 세례와 세례 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sup>41)</sup>

세례후보자가 된 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주중에도 매일 모여 특별히 감독의 성서강론을 듣는 한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사순절 기간 집중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위한 준비를 마친 세례후보자들은 부활적 새벽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 새 가족이 된 자들을 위한 교육이 뫼스타고지(mystagogy)이다.<sup>42)</sup>

로마시대는 이러한 새 가족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들에게 올바른 새 가족 양육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사도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새 가족 양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3)</sup>

첫째, 새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사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새 가족들에게 이들에게 익숙한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견고한 기독교적 신앙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새 가족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시키게 하였다. 사도들은 새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 성령의 여사 속에 성도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새 가족들로 하여금 계속 교회에 머물러서 지속적인 양육을 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41) 이호형, “새 신자 교육의 뿌리 찾기,” *교육목회*, 2004년 봄호, 25. 이 세례교육 과정을 카터 큐메니트(catechumenate)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는 이 과정을 다시 세분하여 처음 과정에 등록한 사람을 말씀을 듣는 자라는 뜻에서 아우디엔테스(audientes)라고 불렀으며, 이 과정을 거쳐 세례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선택된 자(electus)라고 불렀다.

42) Ibid., 26. 비밀 전수교육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2, 3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새 가족 교육 과정을 마무리 짓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로 이해하였고, 이 신비적 사건을 축하하는 성찬을 비밀로 간직하고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을 뫼스타고지라고 하였다.

43) 이용남, *교회성장을 위한 새 신자 목회* (서울: 그린, 1995), 21-36.



셋째, 새 가족들이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하였다. 사도들은 새 가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전념했다.

넷째, 새 가족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 초대교회를 위협한 이단 사상은 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복음에 대항하는 율법주의와 이원론적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였다. 이에 사도들은 서신서의 말씀들을 통해 새 가족들에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계했다.

다섯째, 새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새 가족들에 대한 사도들의 양육의 목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섯째, 새 가족들이 참된 제자가 되도록 양육했다. 사도들은 새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힘써 양육에 참여했다. 이들이 참된 제자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가족들을 양육하였다. 즉 이는 생산과 재생산의 원리로 새 가족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도 새 가족 양육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바나바는 새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바나바는 본래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으나 그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붙여 주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신도인 바나바는 새 가족인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에 대하여 기존 신자들에게 새 가족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론을 해주었다.<sup>44)</sup>

사도시대의 새 가족 양육은 신앙 내용을 단순히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4)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3), 13-17.

#### 나. 중세시대의 새 가족 양육<sup>45)</sup>

초대교회가 발전시킨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다 세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5세기를 지나면서 유아세례가 보편적인 세례형태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초대교회의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은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아이들의 입교예식을 위한 것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초대교회의 새 가족 양육 내용은 설교시에 구두 형태로 구성된 데 반하여 중세교회는 교리문답서(catechism)를 편찬하여 새 가족 양육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중세시대 교리문답서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은 기독교교리의 진수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핸드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의 세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주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의 계명을 각각의 내용으로 기술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교리 설교를 준비하도록 설교자들을 임명했고, 이 설교를 개 교회의 사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57년 영국의 요크에서는 성직자 회의가 열려 일련의 예전 규례집을 인가했는데, 여기에는 교리문답교육의 내용과 횡수가 요약되어 있었다.<sup>46)</sup>

중세교회에서 편찬된 교리문답서는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의식을 거쳐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데 주로 이용되었다. 또한 중세교회가 교리문답서를 편찬한 또 다른 이유는 무지와 몽매 가운데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일깨우고, 화려한 의식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상실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함이었다.<sup>47)</sup>

45) 사도시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가는 이유는 자료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 본 연구가 새 가족 양육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가 아니기에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간다.

46) 이 회의를 주재한 존 소레스비(John Thoresby) 대주교는 무지한 평신도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제들을 위해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한 다음 그 책의 이름을 평신도를 위한 교리문답서(The Lay Folks' Catechism)라고 하였다.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27.

47) Ibid., 27-28.

다. 종교개혁자들의 새 가족 양육<sup>48)</sup>

침체된 중세교회의 새 가족 교육에 불길을 일으킨 첨병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였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종교 개혁자들에게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기독교 전통과 인문주의의 전통을 결합하였다.<sup>49)</sup>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리교육에 대한 지침서를 개정하는 한편, 교리교사를 고용하여 젊은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질문과 대답 형식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평신도들이 각 요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대답하도록 요구했다.

루터는 소교리 문답서를 통해 교육받지 못한 평신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리서로 공부하기를 원했다. 그는 교리교육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도화했으며 교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강조하였다. 즉, 루터는 교리교육을 성찬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루터의 조치는 이후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개혁운동에 참여한 모든 교회의 전형으로 정착되었다.<sup>50)</sup>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쾰링글리(Ulich Zwingli)는 젊은이의 교육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가르침이 믿음을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례의 계약 신학적 의미를 전개하면서 세례와 맞물려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51)</sup>

쾰링글리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확증하기 위해 세례와 교리교육을 연결시켰으며, 이후 마틴 부처(Martin Bucher)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확증하기 위해 교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입교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부처에게 있어 신앙의 확증은 본질적인 믿음의 교리들을 단순히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건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48)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29-31.

49) 김기현, “새 가족 사역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 50

50)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257-269.

51) Ibid., 275-279.

이를 근거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신앙고백과 순종의 서약이었다.

이러한 부처의 영향으로 칼빈은 개혁교회 교리문답서의 표준이 되는 제네바 교리문답(Geneva Catechism)을 통해 교리교육을 수립하며 제네바의 종교개혁 추진에 앞장섰다. 칼빈은 교리교육은 아이들과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신앙고백을 교회 앞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칼빈은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요약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와서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중세교회에서 확립된 네 부분의 신앙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곧 믿음(사도 신경)과 율법(신계명)과 주기도와 성례전이다.<sup>52)</sup>

이상과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되찾고자 하였다. 비록 초대교회의 새 가족 교육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정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성례전과 관련성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가르침을 철저히 했다는 데에 대한 인식만큼은 정확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교리교육에 의해서 권위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모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통해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내면화 할 수 있었다.<sup>53)</sup>

#### 라. 장로교 전통의 새 가족 양육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John Knox)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행했던 예전을 참고로 제네바 예전서 (Genevan Service Book)를 편찬하여 칼빈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영국인 망명교회의 예전서로 사용했다. 이 예전서는 영국 청교도들의 예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칼빈의 예전 모범을 따랐던 장로교 계통 청교도 사이에는 낙스의 예전서 사용이 보편화되었다.<sup>54)</sup>

청교도들도 아이들에 대한 교리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목회자의 임무 중에서 설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는 소교리 문

52) 제네바에서 쫓겨나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 부처와 다른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아이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가장 우선적 과업으로 삼았다.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282-304.

53) 김기현, “새 가족 사역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 53.

54) Ibid., 116.

답서, 젊은이와 어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대교리 문답서를 편찬하였다.

미국의 초기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주일 오후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에게 교리교육을 실시했으며, 심방시에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교리 교육을 실시했고, 어떤 목회자들은 구역을 조직해 조직적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때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교리문답서는 뉴잉글랜드 신앙 문답서 (*The New England Primer*)였는데, 여기에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과 같은 다른 신앙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 마. 한국 개신교의 새 가족 양육

미국 초기 장로교회의 교리교육 역시 철저히 유아세례, 교리문답 교육, 그리고 성찬의 참여라는 도식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전통적 교리교육의 도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단기 교리교육 과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그 단기 교리교육과정이 초기 한국교회에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교리문답 교육, 세례 그리고 성찬 참여하는 초대 기독교 교회의 도식으로 교리교육의 틀이 짜여졌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주일 학교 교육이 초창기서부터 도입되고 교리문답 교육이 서구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차지 하던 역할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에서는 교리문답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교리문답 중심의 새 가족 교육은 학습과 입교식, 그리고 세례예식을 준비하는 단기 과정으로 정착되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오고, 그 대신 새 가족을 위한 성경공부가 현대 한국교회의 새 가족 교육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새 가족 양육은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목회 유형이다. 새 가족 양육은 새 가족을 건강한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새 가족 양육의 이해가 오늘 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새 가족 양육의 몇몇 프로그램을 살펴 볼 것이다.

## 제 3 장

###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는 새 가족 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 교회별로 다양한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알파코스

##### 1. 알파코스의 기원

1970년대 후반 영국교회의 상황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여가시간이 이전과 달리 증대하게 됨으로 다양한 놀이문화와 여가문화가 확산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교인들은 주말이면 교회를 떠나 여가문화를 즐기러 빠져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에는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노인들과 참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는 젊은이들만 남아 있게 되었다.<sup>55)</sup>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보여 달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청년들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원리로 알파 코스는 시작되었다. 영국 성공회 홀리 트리니티 브롬프톤(Holy Trinity Brompton) 교회 (<http://www.alphakorea.org/알파코스소개/>)는 이러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약성경의 전도원리를 찾았다.<sup>56)</sup> 찰스 만함 신부는 먼저 불신자들을 자신의 집

55) 이 때 교회에 남아 있던 17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 중에 80퍼센트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 때 떠나는 사람들이 남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보여 달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두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다. <http://www.alphakorea.org/알파코스소개/알파코스란?>

56) Michael Green, *알파코스와의 만남 그 이후*,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307.

으로 초대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후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 한 시간 동안은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의문점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예수, 성경, 기도, 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참여한 불신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웠다.

이러한 만함 신부의 방법으로 불신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의 전도를 5년 동안 지속하다가, 1981년부터는 존 어바인(John Irvine) 신부가 만함 신부의 역할을 대신 이어 맡게 되었다. 어바인 신부는 이 당시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를 전도의 기회로 여기고, 기존의 4주 과정인 알파코스를 10주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말 수양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주말 수양회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 주일 오후 예배에 도착하도록 계획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4가지 주제<sup>57)</sup>로 토크를 나누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주말 수양회가 더해져서 현재의 알파코스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이후 1995년 니키 리(Nicky Lee)가 이를 체계화 했고, 그의 동료인 니키 검블(Nicky Gumbel)이 홀리 트리니티 브롬푸톤 교회에 부임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sup>58)</sup> 니키 리는 니키 검블에게 알파코스를 맡기게 되었고, 그는 알파코스를 맡아 자료도 재정립하고 체계화 해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sup>59)</sup>

57) 주말 수양회는 성령의 날로 정해져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http://www.alphakorea.org/알파코스소개/알파코스란?>

58) Nicky Gumbel, *인생의 의문점들*,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225. 니키 검블은 능력전도를 주창하는 빈야드(Vineyard Christian Fellowship)의 존 웹버와 그 교회팀을 홀리 트리니티 브롬푸톤 교회로 초청하면서부터, 1976년 초기 찰스 만함 신부에 의해서 시작했던 순수했던 알파코스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4주 코스에서 4가지 주제(예수, 성경, 기도, 확신)가 다뤄졌는데 10주 코스로 변경되면서 15개 토크 주제로 늘어났고, 10주 코스 안에는 주말 수양회가 생겨난 것으로 보면, 알파코스과 능력전도의 혼합 프로그램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59) 백진식,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본 알파코스에 관한 비평적 연구" (세계선교대학원 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 78-79. 알파코스가 한국교회에 소개된 시기는 1998년 영락교회에서 1회 알파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교회들이 알파코스를 통해 부흥하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 2. 알파코스의 의미

알파코스의 성경적 근거는 골로새서 3장 23-24절이다. 알파코스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A.L.P.H.A."라는 5개의 이니셜을 이용한다.<sup>60)</sup>

첫째, A-Anyone can come: 누구나 올 수 있다.

둘째, L-Learning and Laughter: 웃으면서 재미있게 배운다.

셋째, P-Pasta: 음식을 함께 먹는다.

넷째, H-Helping one another: 서로 섬기며 돕는다.

다섯째, A-Ask anything: 무엇이든지 물어 볼 수 있다.

알파코스는 이러한 5가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10주간 다양한 주제로 참여자들과 토크를 진행하게 된다. 10주간의 토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sup>61)</sup>

1주-예수님은 누구신가?

2주-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3주-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4주-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5주-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6주-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주말 수양회1-성령님은 누구신가?

주말 수양회2-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말 수양회3-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주말 수양회4-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7주-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8주-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9주-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10주-교회에 대하여

60) Nicky Gumbel, *알파 시작하기*,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61.

61) 알파코스를 섬기는 소그룹 리더들은 총 3회의 교육을 받으며, 알파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그룹 인도법 훈련' 과 '목회적 돌봄 훈련'을 하고 주말 수양회를 떠나기 전에 '알파사역 훈련'을 하게 된다.



### 3. 알파코스의 특징

알파코스의 전체적인 목표는 새 가족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여섯 가지 세부적인 목적이 있다. 첫째, 토크 중에 나온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함이다. 둘째, 성경공부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셋째, 함께 기도하기를 배우기를 위함이다. 넷째,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다섯째, 섬기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다음번 알파코스의 인도자 혹은 봉사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알파코스는 무엇보다도 성령체험을 강조한다. 성령을 체험해야 새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6주의 교육과정이 끝나면 4번의 주말 수양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주제이다. 그렇기에 알파코스는 성령 체험의 특징들이 있게 되고 성령 체험의 장을 만들어 놓는다.

### 4. 알파코스의 전도원리

니키 검블은 “알파코스는 초대되어 참석하는 이들에게 신앙을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코스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우정을 바탕으로 한 한 전도”라고 이야기 했다.<sup>62)</sup> 알파코스는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창안된 프로그램이다. 알파코스의 주요원리는 전도의 원리이다(고전 1:21). 전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알파코스는 매우 효과적이다. 알파코스의 전도원리는 다음과 같다.<sup>63)</sup>

첫째, 지역교회를 위한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과정으로서의 복음 전도에 효과적이다.

셋째, 전도는 전인격을 포함한다.

넷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역동적이고 효과적이다

다섯째, 전도는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62) Nicky Gumbel, *알파코스 운영방법*,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2003), 95.

63) Gumbel, *알파 시작하기*, 34-61.

### 5. 알파코스의 평가

마이클 그린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양해서, 자신만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 가족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친구들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64)</sup> 그는 알파코스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다. 우선 그것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당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과의 대화가 생각보다 쉽게 열려진다는 사실이다.<sup>65)</sup>

일반적으로 알파코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난 뒤 알파코스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의 정착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알파코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 새 가족들은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고, 전체적인 진행방식이 주입식 방식이 아닌 토의식 방식을 지니고 있어서 새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신앙의 신념교육의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파코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성의 부분들이 강조되기 보다는 다양성이 침해되고, 특정한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게 되어 성령의 사역이 획일화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sup>66)</sup> 또한 알파코스의 단점은 리더십이 담임목사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리더인 담임목사가 지도력을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신앙의 통적적인 여러 부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알파코스를 통해 건강한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참된 하나님의 제자를 이루어 가는 과정과 전도에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양육의 과정에서는 성령사역에

64) Green, *알파코스의 만남 그 이후*, 12-13.

65) Ibid., 15-16.

66) 실제로 이러한 성령 사역의 일부분인 금니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성령 사역의 본질을 잃고 이적과 기사만을 바라고 내세우는 변질된 사역을 보이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치중된 과정으로 인해 통합적인 신앙과 통합적인 양육으로 이어가는 과정에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바나바 사역

### 1. 바나바 사역의 기원

바나바 사역은 새 가족 양육을 위한 멘토링 사역 중의 하나로 처음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을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교제하고 돌보며 섬김으로 교회에 정착시키고 양육하여 앞으로의 사역자로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새 가족 환영 및 양육 사역이다. 바나바 사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가 한 일을 사역의 근거로 한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무도 반겨 주지 않았던 새 가족 사울을 기쁨으로 환대함으로 오늘날 새 가족 영접에 모범이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영접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교회에 새로 온 새 가족을 먼저 찾아갔고,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사람의 교제를 나누었고, 새 가족의 형편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새 가족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그는 새 가족이 주의 일을 하도록 새 가족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과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sup>67)</sup> 바나바의 이러한 새 가족 영접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새 가족을 영접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이러한 형태를 발전시켜 바나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2. 바나바 인물 이해<sup>68)</sup>

바나바 사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란 인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행 4:36). 바나바의 별명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로마제국의 지배로 사회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바나바는 믿음의 형

67)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13-17.

68) Ibid., 22-23.

제들을 물질과 마음으로 위로했다.

둘째,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행 11:24). 성경을 보면 그는 '착한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착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말이기애 스스로는 착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표본이 되었다.<sup>69)</sup>

셋째, 그는 중보자였다(행 11:27).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자였다. 당시 초대교회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비록 그가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의 무자비한 소행을 알고 있던 교인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사도들과 사울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다.

넷째, 그는 행동의 사람이었다(행 9:27). 바나바는 옳다고 판단한 일은 실천하였다. 그는 사울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임을 믿었고 당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다섯째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행 11:22, 25). 바나바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첫째는 사도들로부터, 둘째는 교회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여섯째 그는 교회를 부흥시켰다(행 11:22-24).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이바지한다. 숨어 있는 보배로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한다. 바나바를 통하여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sup>70)</sup>

### 3. 바나바 사역의 이해

#### 가. 바나바 훈련

바나바 사역은 훈련된 바나바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 7주간의 기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 양육 받는 바나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바나바가 되기 위한 바나바 훈련은 바나바의 특성과 인간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7장으로 구성된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sup>71)</sup> <표 1>은 바나바 양육을 위한 훈련 교재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69) 김명남, *착한 사람 바나바*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2), 6.

70) 김명남, *교회를 부흥시키는 바나바*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3), 7.

71)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4-5.

· <표 1> 바나바 양육을 위한 훈련교재 내용

| 주차  | 교육 내용                       |
|-----|-----------------------------|
| 1주차 |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
| 2주차 | 바나바가 됩시다(1) -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으로 |
| 3주차 | 바나바가 됩시다(2) - 바나바의 신앙을 중심으로 |
| 4주차 |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
| 5주차 | 새 가족 성경공부(1)                |
| 6주차 | 새 가족 성경공부(2)                |
| 7주차 | 열매를 위하여                     |

#### 나. 바나바의 임무

바나바 사역은 총 7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훈련된 바나바와 새 가족이 일대일 만남을 통해 교체하게 된다. 장소와 시간을 서로 정하며 '7주 새 가족 안내서'를 교재로 규칙적인 성경공부를 나누게 된다. 7주간 바나바 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바나바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새 가족 위원회가 맺어 주는 새 가족을 일대일로 찾아가서 만나는 일, 둘째, 새 가족을 7주간 매주 1회 이상 만나는 일, 셋째, 새 가족 양육 편지를 발송하는 일, 넷째, 발송편지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일, 다섯째, 매주일 예배 후 새 가족에게 교회의 중직자 3명을 소개시켜 주는 일, 여섯째, 담당할 새 가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일, 일곱째 새 가족의 교회생활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 사랑과 친절을 보이는 일, 마지막 사역과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일 등이다.<sup>72)</sup>

#### 4. 바나바 사역의 평가

새 가족 양육에 있어 바나바 사역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바나바 사역은 새 가족을 기존의 교인들과 사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새 가족들에게 교회는 낯선 곳인데, 교회내의 중직자들과의 만남과 교체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활동하는

72) Ibid., 12.

데 큰 도움이 된다. 둘째, 바나바 사역은 새 가족들에게 새 가족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처음오자마자 새 가족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교육을 위해 예배실이나 강의실에 앉아서 딱딱한 강의를 듣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바나바 사역은 이러한 형식을 깨고,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의 교육이 진행되기에 새 가족들에게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일대일 관계를 통해 교회 생활에 대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2> 바나바 사역 교재 내용-새 가족 안내서

| 주차  | 교육 내용             |
|-----|-------------------|
| 1주차 | 우리교회, 하나님의 교회     |
| 2주차 | 우리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
| 3주차 | 우리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
| 4주차 | 교회의 사명            |
| 5주차 | 교회와 예배            |
| 6주차 | 교회와 축복            |
| 7주차 | 모범적 신자            |

그러나 많은 장점들 속에 몇몇의 단점들도 지니고 있다. 우선 일대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바나바들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새 가족들의 교육 성과와 만족도가 달라진다. 바나바들이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사역이어서 개개인 바나바들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일대일로 진행되는 교육이기에 다소 교육의 목적보다는 친목의 목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위험요소도 따르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는 잘 훈련된 바나바들이 필요하여, 바나바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하고, 바나바 사역간 교육이 친교의 모임으로 성격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 3 절 엠마우스(Emmaus)

1. 엠마우스의 기원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은 영국 북부의 성공회 교구에서 개발된 양육 프로그램이다. 엠마우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의문과 실망에 빠진 제 엠마우스로 가는 주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된다.<sup>73)</sup>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복음 전도와 양육과 제자도를 위한 모델로 이해한 것에 뿌리를 둔 양육 프로그램으로 새 가족들을 기독교 신앙과 교회 생활에 정착하는데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엠마우스의 구성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는 접촉, 양육, 성장이라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촉, 양육,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 양육 프로그램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란 곧 ‘함께 하는 여정(旅程)’이라는 이해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 <표 3>은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의 단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의 단계<sup>74)</sup>

|   |           |           |            |   |
|---|-----------|-----------|------------|---|
| → | 제 1단계: 접촉 |           | 제 3단계: 성장  | → |
| → | 접촉을 하고    | 제 2단계: 양육 | 지속적인 성장과   | → |
| → | 관계를 구축하는  | 15과의 과정   | 제자도에 관한    | → |
|   | 것에 관한 책자  |           | 15개의 짧은 코스 |   |

가. 제 1단계: 접촉

엠마우스 교재 중 ‘접촉하기’ 부분은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개별 회중이 어떻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손을

73) 한국 엠마우스, 엠마우스 믿음의 길 편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9), 4.

74) 한국 엠마우스, 엠마우스 소개서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7.

뻔기 시작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여 교회와 교회 밖의 더 넓은 공동체 사이에 흔하게 벌어져 있는 매우 먼 간격을 사람들이 건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접촉은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이웃을 위한 교회의 일상적인 섬김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sup>75)</sup>

#### 나. 제 2단계: 양육

엠마우스 단계의 양육과정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친숙하게 여겨지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기초와 관련된 15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엠마우스 양육 단계는 탐구를 격려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표 4> 엠마우스 양육 단계의 15가지 주제

| 구분 |                        |                |
|----|------------------------|----------------|
| 1  | 제 1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
| 2  |                        |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  |
| 3  |                        | 예수님의 삶과 사역     |
| 4  |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
| 5  |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
| 6  |                        |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
| 7  | 제 2부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방법은? | 기도를 배우기        |
| 8  |                        | 성경을 읽기         |
| 9  |                        | 교회에 속하기        |
| 10 |                        |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기   |
| 11 | 제 3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
| 12 |                        | 재능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 |
| 13 |                        | 가진 것을 베풀며 살기   |
| 14 |                        | 용서와 사랑을 배워가기   |
| 15 |                        | 복음전도           |

75) 한국 엠마우스, 엠마우스 소개서, 7-8.



### 다. 제 3단계: 성장

엠마우스 성장 단계의 목표는 새 가족들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으로, 새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교회의 사도적 삶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성장 단계의 출발점은 양육 단계의 과정과 유사한 주제이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탐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단계는 전체 15개의 코스로 구성되었으며, 각 코스는 4개에서 6개 사이의 양육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6)</sup>

<표 5> 엠마우스 성숙 단계의 15가지 주제

| 구분 |                |                        |
|----|----------------|------------------------|
| 1  | 제 1부 하나님을 아는 것 | 복음대로 살기                |
| 2  |                | 성부 하나님 바로 알기           |
| 3  |                | 성자 예수님 바로 알기           |
| 4  |                | 성령님이여, 오소서             |
| 5  | 제 2부 그리스도인의 성장 | 기도 안에서 성장하기            |
| 6  |                | 성경 안에서 성장하기            |
| 7  |                | 교회의 지체되기               |
| 8  |                | 예배 안에서 성장하기: 성례에 대한 이해 |
| 9  |                |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   |
| 10 | 제 3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        |
| 11 |                | 악의 극복                  |
| 12 |                | 개인의 정체성                |
| 13 |                |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
| 14 | 제 4부 나라이       | 팔복                     |
| 15 | 임하옵시며          | 하나님 나라                 |

### 3. 엠마우스의 진행방법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에는 전체 여덟 가지 요소들이 진행된다. 첫째, 게임(아이 스토리크), 둘째, 사람들의 이야기(특별한 나눔-간증), 셋째, 강의, 넷째, 버즈그룹

76) 기존 교회의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들은 양육 기간을 거쳐 신앙생활을 출발하도록 도운 후에 성장을 멈춘 상태에 방치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분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한국 엠마우스, 엠마우스 소개서, 14-18.

(buzz group), 다섯째 전체 토의와 질문시간, 여섯째 성경공부, 일곱째 영상 자료,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티타임 이다. 이들 중 버즈그룹이나 강의, 토론과 질문, 티타임 등은 매 시간마다 가지게 되지만, 나머지 요소들은 모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sup>77)</sup>

이 과정의 첫 저녁 모임에 모인 낯선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친구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모임 안의 관계는 처음에 아주 느리게 자라가는 것이다. 10번의 모임이 있는 후에는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으로 깊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낯선 존재에서 친구가 되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서이다. 그 길은 전체 양육과정을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지만 특별히 초반부에 집중된다.<sup>78)</sup>

#### 4. 엠마우스의 평가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 가족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엠마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새 가족들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지는 버즈 그룹을 통한 만남과 나눔은 새 가족들이 처음 들어온 교회에서 편안한 만남을 형성하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회 안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다. 둘째, 엠마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새 가족 훈련과 달리 엠마우스 프로그램의 기간은 비교적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단계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별 연관성을 가진 엠마우스 프로그램은 새 가족들에게 교회의 교리나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엠마우스 양육프로그램의 한계는 새 가족 양육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새 가족들보다는 기존의 신자들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이점이 있다는 부분이다. 우선 교육의 기간만을 보아도 처음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이 15주라는 과정을 훈련

77) 이 요소들 중에 특별한 요소는 버즈그룹을 활용하는 것이다. 매주마다 열 명 정도의 모임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버즈 그룹을 사용하게 된다. 소그룹과 비교할 때 버즈그룹은 외형상 소규모의 그룹이지만 형식이 자유롭고 동역리더들을 중간 중간에 배치시켜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 엠마우스, *엠마우스 믿음의 길 리더 가이드 편*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9), 9.

78) Ibid., 9-10.

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 가족교육의 평균 기간은 5주 정도이다. 또한 아직 이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내에서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 소수이며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엠마우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분석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교회내의 새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엠마우스 양육을 통해 효과적인 새 가족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의 적절한 길이 조절과 함께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 제 4 절 멘토링

##### 1. 멘토링의 기원<sup>79)</sup>

‘훌륭한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의 인물, 멘토(Mentor)에서 유래되었다. 멘토는 자신에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자신의 임무가 완료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떠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멘토링’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지혜 있는 노인이나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나타내는 말로 실생활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청년을 연장자와 짝 지우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은 젊은이가 자신의 멘토인 어른으로부터 지식을 전수 받고 좋은 점을 본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경우는 대개 아버지의 친구나 친척이 멘토로 정해졌다.<sup>80)</sup>

이러한 멘토와 텔레마쿠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활용한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의 페넬롱(Fenelon)이었다.<sup>81)</sup> 그는 멘토로서 프랑스 루이 14세의 손자 루이스(Louis)를 지도했으며, 1699년에는 텔레마쿠스에 대한 책, *텔레마쿠스의 모험*을 써서 널리 알렸

79) 김덕주, *멘토링 핸드북* (서울: 아리울, 2009), 20-22.

80) Margo Murry, *멘토링 오래된 지혜의 현대적 적용*, 이용철 역, (서울: 김영사, 2005), 31-37.

81) 페넬롱(Fenelon, 1651-1715)은 프랑스 명문가 출신으로 예수회 소속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성직자, 사상가로서 *텔레마쿠스의 모험*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여기서 최초로 불어로 ‘프로테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던 인물로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는 멘토링의 사상을 전해 준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앞으로 '멘토'라고 하자라고 한 데서 멘토링 이론이 시작되었다.<sup>82)</sup> 이로서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 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멘토'란 단어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멘토링'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76년 미국의 밥 빌(Bobb Biehl)이 인간관계 및 조직의 발전을 돕는 컨설팅 회사인 국제마스터플랜 그룹(MGI; Masterplanning Group International)을 창립하여 주로 지역교회와 비영리 단체와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신적으로 멘토링을 시작하였다.<sup>83)</sup>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다니엘 레빈슨(Daniel Levinson) 교수가 1978년 쓴 베스트 셀러, *남성의 계절(The Seasons of Man's Life)*이 출판된 이래로 멘토링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레빈슨은 이 책에서 성인 시기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없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84)</sup>

이후 1978년 캐나다의 윌리엄 그레이(William A. Gray) 박사와 M. 그레이(Marilynne Miles Gray) 팀이 TMI(The Mentoring Institute)를 설립하여 주로 기업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법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79년 로체가 발표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라는 잡지를 통해 대부분의 성공한 임원들의 배후에는 멘토가 있었다는 조사보고 내용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멘토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sup>85)</sup>, 오늘날 많은 우수한 기업과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멘토링을 적용하고 있다.<sup>86)</sup>

한국에서는 1998년 한국 멘토링 연구소(KMI)가 설립되고, 박건, 류재석, 김덕주 목사가 전문위원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멘토링 연구가 시작되었다.<sup>87)</sup> 이후 2000년에는 한국교회 멘토링 연구원이 설립되어 교회를 대상으로 멘토링에 대한

82) 박건,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 (서울: 나침반, 2006), 13.

83)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9), 14.

84) 김덕주, *멘토링 핸드북*, 26.

85) 류재석, *멘토링의 원리와 현장적용방법*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5.

86) 류재석, *성경 그리고 멘토링* (서울: 이담, 2010), 24.

87) 김덕주, *멘토링 핸드북*, 25.

이해와 교회적용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수많은 교회와 학계에서 멘토링에 대한 관련서적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며 높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 2. 멘토링의 이해

용어상에 있어 멘토는 그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과거에는 불어에서 온 '쁘로떼주(Protege)'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으나 새로운 용어에 대한 부담과 단어 자체가 '멘토'에 비해 길기에 '멘토리(mentoree)' 혹은 줄여서 '멘티(mentee)'라고 사용한다.<sup>88)</sup> 그러므로 '멘토링(mentoring)'은 멘토와 멘티가 활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멘토링은 드물게 멘토십(mentorship)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멘토링은 리더십, 제자도, 따르는 자의 도(followership) 등과 어울려 함께 언급되기도 하나 이러한 개념들 간에는 상이한 차이점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멘토링'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sup>89)</sup>

로버트 클린턴(Robert Clinton)은 멘토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멘토링이란 멘토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멘티로 불리는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과 여러 가지 자원을 교환하여 줌으로써 능력을 키워주는 인간관계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배양되는 종류의 새로운 습관, 지식, 기술, 전망, 가치관, 잠재적인 것은 멘티의 발전과 계발을 위한 자원에 연결된다.<sup>90)</sup>

또한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와 윌리엄 헨드릭스(William Hendricks)는 멘토링이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멘토링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실행될 때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멘토링은 교훈보다는 직접적인 가르침-젊은이들을 성숙한 어른으로 양육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sup>91)</sup>

88) 박건,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 15-16.

89) Ibid., 12.

90) Robert Clinton,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3), 140.

91) Howard G. Hendricks and William D.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전의우 역 (서

그리고 멘토와 멘티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20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sup>92)</sup> 박건은 멘토링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장·단기적으로 혹은 정규적, 비정규적으로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과정”<sup>93)</sup>이라고 본다. 그리고 김덕주는 멘토링을 “멘토가 멘티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일대 일로 관계를 맺어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sup>9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의 멘토링에 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과, 둘째로는 인간관계이며, 마지막으로는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임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즉, 본 연구자는 멘토링이란 멘토가 되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멘티와의 일정한 관계를 통해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혜와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며 극히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 3. 멘토링의 형태

멘토링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단기 멘토링(short mentoring)과 수동적 멘토링(passive mentoring) 그리고 간헐적 멘토링(occasional mentoring)과 계획적인 멘토링(deliberate mentoring)으로 나눌 수 있다.<sup>95)</sup>

단기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일정기간 동안만 멘토링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멘토링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멘토는 평생토록 멘티에게 유익을 끼치는 관계로 남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멘토링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멘토링 관계가 평생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단기적인 형태의 멘토링 관계가 멘토와 멘티 사이의 전형적인 관계 패턴이다. 멘티가 집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 도움을 받고 난 후 멘티는 또 다시 큰 도움을 필요로 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 기

출: 요단, 2004), 287.

92)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133-141.

93) 박건,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 12.

94) 김덕주, *멘토링 핸드북*, 32.

95) 황영선, “성경적 지도자 교육 방법으로서의 멘토링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2), 11.

간 동안 멘토는 잠시 물러나 있게 된다.<sup>96)</sup>

수동적 멘토링은 멘티가 자신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영웅이나 역할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즉 멘토의 가치관 또는 행동을 본받으려 할 때 일어난다. 이 때 멘티에게는 배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멘토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간헐적 멘토링은 교사, 카운슬러, 개인교사, 후원자 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여기서는 주로 멘토 쪽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침을 주지만, 멘티는 그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적인 멘토링은 부모와 자녀, 영적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자들, 코치와 선수 사이에서 볼 수 있다.<sup>97)</sup>

이와 같은 멘토링의 형태는 정형화 된 것이 아니다. 위에서처럼 단기적인 멘토링 관계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평생에 걸쳐 멘티의 성장을 기다리고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원하는 멘토링의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멘토의 입장에서 때로는 일생동안 계속되는 관계는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멘토링의 관계에서 멘티가 진실로 멘토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또한 멘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sup>98)</sup>

#### 4. 멘토링의 필요성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는 미국인의 큰 자산이었던 개인주의가 부패하게 되면서 미국인들은 상호 의존이 절대 필요한 시기에 개인적인 독립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였다.<sup>99)</sup> 미국은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 가치관의 혼돈,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의 몰락, 구멍 뚫린 학교 교육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날로 늘어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문제 아이들이 생겨나고 성폭력사건, 10대 청소년들의 늘어나는 범죄들, 원조교제, 폭등하는 이혼문제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은 상호의존적으로 살도록 지어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세움을 입고 영향을 끼치는 모든 유익들을

96) Bobb Biehl, *멘토링*, 김성웅 역 (서울: 디모데, 1997), 48.

97) Walter C. Wright, Jr, *관계를 통한 리더십*, 양혜정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83.

98) Margo Murry, *멘토링 오래된 지혜의 현대적 적용*, 이용철 역, (서울: 김영사, 2005), 31-37.

99)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18.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서 오는 현상이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서 전수되며, 신앙의 의미는 역사의 흐름가운데서 그 구성원들과 서로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확인되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진다.<sup>100)</sup>

밥 빌은 그의 책 *멘토링*에서 멘토링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01)</sup>

멘토는 우리에게 인생의 산에서 손을 붙잡고 발을 디딜만한 안전한 곳이 어디이고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준다. 멘토와의 '커피 한 잔'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상당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멘토와 나누는 짧은 대화에 달려 있다. 또 모든 종류의 전환점에서-직업을 바꾸거나, 아이를 낳거나, 새로 발령 나는 등-멘토와의 짧은 대화는 무수한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멘티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재정적인 문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혹은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멘토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문제의 흐름을 바꿔 놓는다.

밥 빌의 말처럼 멘토링은 인간의 장단점과 성장의 영역을 명확히 밝히도록 도와주며, 특별히 청년들이 어른으로 변해가는 길목에서 개인적인 성숙이라는 다리를 세우도록 도와주며 보살피 줄 수 있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박안석 목사는 멘토링을 통해 누리게 되는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직업적 유익으로 멘토가 있는 사람은 멘티가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아낄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업적 이익을 얻게 된다. 둘째는 정서적 유익으로 일반적으로 인생경험이 많은 멘토를 모시고 있는 멘티는 인생에 있어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유익인데, 멘토링은 신앙의 성장과 자아의 성장으로 가져오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발전적인 유익을 안겨준다.<sup>102)</sup>

100) 김도일,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문서선교회, 2006), 168.

101) Bobb Biehl, *멘토링*, 121.

102) 박안석, *청소년 멘토링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85.



위와 같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멘토와 멘티간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바로 멘토링으로 정의할 수 있기에 오늘날 멘토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 5. 멘토링의 평가

멘토링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멘토링은 전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멘토링을 통해 새 가족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전할 수 있다. 둘째, 멘티는 멘토를 통해서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현실을 통해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돕는다. 셋째, 멘티는 멘토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른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멘토링은 초기에 어떤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기에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멘토링의 단점은 첫째,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과 멘토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멘토링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멘토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심이다. 멘토와 멘티는 서로간의 우월감을 배제하고 동역자나 동료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시간과 헌신에 대한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멘토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체로 바쁜 일정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멘토링의 핵심은 멘토와 멘티의 지속적인 관계인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만남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멘토링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멘토링은 양육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동체성을 느끼게 함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처음 새 가족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의 부분에는 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알파 사역은 전도대상자들을 어떻게 접촉하며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것인지, 또한 새 가족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이끌 것인지를 잘 소개한다. 바나바 사역은 새로이 등록된 새 가족이 낯 서른 환경인 교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훈련된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를 안내하고, 교회생활을 안내한다. 일대일관계 속에서 쉽게 교회에 적

응하도록 돕는다. 엠마우스 사역은 새 가족들을 기독교 신앙과 교회 생활에 정착하는데 많은 이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 밖 사람들을 교회로 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멘토링 사역은 관계에 더 중점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대부분의 양육 프로그램은 교회 소개와 새 가족학교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에 중점이 있다면 멘토링은 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 새 가족이 겪는 일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관계 속에서 인도하고 있다.

각각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마다 뛰어난 장점이 있다.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례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제 4 장

### 새 가족 정착 사역의 사례 검토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교회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교회들은 모두가 현재 담임목사가 부임한 이후 부흥을 하였으며 장년 출석이 이천 명 이상이 되며,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큰은혜교회와 공통점이 있다 할 수 있다. 먼저, 신양교회는 알파를 교회에 맞도록 적용하여 'MS 4steps'를 개발하여 새 가족을 사역자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선창교회는 젊은 담임목사 부임 이후 배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바나바사역으로 새 가족정착을 돕고 나아가 남을 돕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능교회는 멘토링사역에 알파, 제자훈련, 그리고 일대일 바나바 사역을 접목하여 자체 개발한 크로스 양육시스템을 통해 복음학교와 일대일 양육 과정으로 새 가족을 양육하고 제자화 하여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제 1 절 신양교회<sup>103)</sup>

##### 1. 교회소개

신양교회는 1964년 11월 중앙교회에서 분립하여 이차업 권사가 대지 66평을 헌납하고 교우 35명이 모여면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해 초대 담임목사인 김현준 목사의

103) 신양교회의 새 가족 양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자료 등을 참조하였으며, 필자가 과거에 실제로 새 가족 양육 시스템을 운영하던 교역자였기에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글을 쓰는데 비교적 용이하였다. 또한 신양교회는 3장에서 본 연구자가 언급했던 양육 프로그램들 중 알파를 교회에 맞게 적용하여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회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부임으로 교회는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새로운 예배터를 확보하면서 1991년 새로운 교회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1993년 3월에 3대 현 담임목사인 이만규 목사가 부임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교회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하며, 감동과 치유 그리고 축복이 있는 예배와 신앙고백적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세상을 향한 봉사(선교)의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꿈꾸는 교회이다.

지역사회를 향해 신앙교회는 사회봉사 목회와 영성목회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청년비전센터, 사회봉사센터, 성수 모닝컴랜드, 영성치유학교, 철원 모닝컴랜드, 신앙호센터, 아침 해가 오르는 땅 문화센터, 독점유원지 선교센터, 경로당예배, 광진구 청선교회, 건대입구역 차봉사 등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2. 새 가족 양육의 실제

신양교회는 새 가족들을 양육하기 위한 'MS 4steps'라는 사역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MS 4steps는 'Morningcome Land System 4steps'의 약자로서 Ministry System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총 4단계로 구성된 MS 4steps는 첫 번째 기본과정인 새생명반, 두 번째 단계인 의식과정, 세 번째 단계인 제자화 과정,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사역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전체적인 MS 4steps의 각 단계를 살펴보고, 새 가족 양육의 첫 번째 단계이자 핵심 단계인 첫 번째 단계, 새생명반에 진행되는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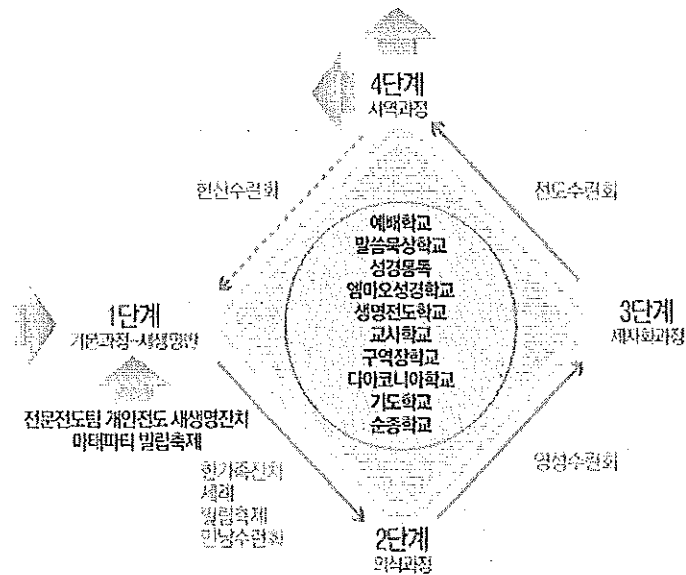
### 가. 새 가족 양육을 위한 4steps<sup>104)</sup>

새 가족 양육을 위한 신앙교회의 4steps에는 총 4개의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터를 닦는 기초단계로서 '새생명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새생명반은 신앙의 기본훈련과 교회생활의 기초를 닦아주는 단계로 그룹학습과 만남수련회, 한 가족 잔치,

104) 이만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 (서울: 한국목회사역연구소, 2010) 159-163.

빌립축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의식화 단계이다. 첫 번째 새생명반을 수료한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의식화를 위한 핵심 교리, 교육과 QT를 기본으로 한 신앙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는 소그룹 학습훈련, 영성훈련, 영성수련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제자화 과정으로 신앙의 생활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앙인의 생활 훈련을 통해 새 가족들이 사회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룹학습훈련과 전도여행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역과정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그룹의 원리와 그룹역동, 구역관리, 리더십 은사, 영성 등 평신도 지도자로서 소양을 키우는 과정으로 네 번째 과정을 통해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그룹 학습훈련과 헌신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신앙교회의 양육시스템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신앙교회 양육시스템



나. 새생명반<sup>105)</sup>

먼저, 신앙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여 등록카드를 제출하게 되면 새 가족은

105) 이만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 297-299.

예배 후 새 가족실로 영접되어 담임목사와 만남을 하게 된다. 이 시간은 비전 나눔의 시간으로 담임목사가 직접 새 가족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기초적인 교회 생활을 안내하며 새로 나온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이다.

비전 나눔의 시간 이후 5주간의 기간 동안 새 가족은 새생명반 그룹학습을 진행하게 되며, 아이스 브레이크-찬양-주제영상 및 특송-토크(소그룹)-축하와 격려-십자가의 헌신의 순서로 진행된다. 새생명반 그룹학습은 MS 4steps의 첫 번째 단계로 매주일 예배 후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를 통해 새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죄와 구원, 믿음과 교회생활, 예배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훈련하여 신앙생활의 기초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앙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표 6> 새생명반 주차별 주제

| 주차  | 교육 내용          |
|-----|----------------|
| 1주차 | 신앙교회, 어떤 곳일까요? |
| 2주차 | 구원, 왜 받아야 할까요? |
| 3주차 |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
| 4주차 | 교회생활, 어떻게 할까요? |
| 5주차 | 세례, 왜 받아야 할까요? |

등록신청을 하고, 비전 나눔의 시간과 새생명반 그룹학습을 5주간 진행한 새 가족들만 정식교인으로 등록이 되며 환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새생명반을 수료한 새 가족들은 1박 2일간의 만남수련회에 참여하게 된다. 만남수련회는 세 가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만남수련회 이후 새 가족들은 다음 주에 봉사자와 함께 모여 만남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경험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클린처치, 식당봉사 등 받은 은혜를 섬기며 필요에 따라 예배 안내 등으로 봉사하기도 한다.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빌립축제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또 다른 만남의 기쁨을 증거하며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초대하게 된다.

#### 다. 새 가족 관리<sup>106)</sup>

새 가족이 등록하면 새 가족에게 환영카드나 이메일이 발송되며, 담당 교역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환영하며 축하하게 되고, 구역장과 함께 2주 이내에 새 가족 심방을 하게 된다. 새 가족을 관리하는 사역팀은 영접 사역팀, 새생명반 사역팀, 양육 사역팀, 새 가족 행정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접 사역팀은 새 가족을 영접실로 안내하고 새 가족의 인적사항과 각종 영접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고, 새 가족을 식당으로 안내하며 교회의 시설물을 소개한다. 새생명반 사역팀은 찬양, 장식, 탁아, 식당, 교육팀으로 사역을 분담하여 교구별 그룹학습을 지원한다. 양육 사역팀은 새생명반 그룹학습 동안 새 가족의 주일예배 참석과 교회사역 시스템, 여러 시설과 교회생활에 대해 안내하며 불가피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새 가족은 통신교육을 받도록 안내한다. 새 가족 행정팀은 각종 행정자료, 등록신청서, 양육일지, 양육카드, 새 가족 사역일지, 새생명반 신청서, 새 가족사진, 새생명반 훈련자료와 영상, 새 가족훈련 현황판, 새 가족 데이터베이스, 홍보전시물 등을 담당하게 된다.

### 3. 평가

신양교회는 새 가족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양육을 받게 된다. 사역을 팀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팀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새 가족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사역에 반영한다. 새생명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여 통신교육이란 대안을 제시한다. 새 가족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별 토크 주제를 제시하고 교구 담당 목사와 이야기함을 통하여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생명반이 끝이 나면 연 2회로 진행되는 1박 2일의 만남수련회를 통하여 깊이 교제하며 공동체성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4단계의 양육체계와 각 가정마다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수련회는 새 가족에 너무도 벅차게 다가오는 것 같다. 특별히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을 때 다음단계를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새 가족에게는 부담으로 다가 온다.

106) 이만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 291-294.

## 제 2 절 선창교회<sup>107)</sup>

### 1. 교회소개

1959년 5월에 용두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선창교회는 1961년 이인구 전도사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면서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는 안정을 찾기 시작하며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이인구 전도사가 사역하면서 1961년 교회 명칭을 용두리교회에서 선창교회로 개명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이어 1967년 11월에는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후 고용일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교회를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어 배가 성장을 이루었다. 고용일 목사가 부임할 당시의 교인이 60여명이었으나 몇 년만에 교인수가 400여명이 넘게 되었고, 교회는 또 다시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기도하던 중 1978년 11월에 건축을 선포하였으며 1980년 11에는 새로운 예배당으로 입당하게 되었다.

새로운 예배당으로 입당한 이후에도 고용일 목사의 영적인 헌신과 사역으로 인해 교회 교인의 수는 급증하여 1981년에는 800명이 넘는 교인이 등록하게 되었다. 이후 고용일 목사는 선창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02년 고요일 목사가 원로목사로 은퇴하게 되면서 김혁 목사가 선창교회의 4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젊은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선창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김혁 목사는 선창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둘째는 사랑을 실현하는 창조적인 교회, 셋째는 제자화를 강조하는 교육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를 강조하는 회복이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비전들을 위해 선창교회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명령을 이루는 교회를 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다.

107) 선창교회의 새 가족 양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자료와 김혁,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의 논문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선창교회는 일대일 바나바 사역을 통해 새 가족 양육을 시도한 교회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 2. 새 가족 양육의 실제

새 가족이 등록카드를 작성하면 먼저 환영교인으로 분류가 된다. 환영교인으로 분류된 새 가족들은 5주간 선창교회의 새 가족부의 교육을 받게 된다. 5주간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등록교인이 된다.

선창교회의 새 가족 사역의 목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있다. 또한 새 가족들이 선창교회의 공동체원으로 교회내의 다양한 활동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교회 생활을 경험하고,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창교회는 효과적인 새 가족 정착을 위해 3가지 단계를 통해 새 가족이 교회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환영을 통한 정착으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처음 방문함을 통해 갖게 되는 첫인상과 교회가 새 가족들을 향해 보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활용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현관, 예배실 그리고 새 가족부실에서의 환영으로 나누어서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를 통한 정착으로 새 가족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새 가족부를 통한 관계, 목장을 통한 관계, 그리고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내의 각종 훈련 학교와 행사를 통한 관계 형성을 통해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단계로 선창교회의 새 가족부 교육을 통한 정착 단계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새 가족부의 양육 목표<sup>108)</sup>

선창교회 새 가족부의 양육의 목표는 새 가족들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고 더 나아가 새 가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새 가족부의 양육을 통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나아가 훈련되고 준비된 사역자로 세워

108) 김혁,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85.

지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래서 새 가족부의 양육을 통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연약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점점함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양육이기에 선창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는 다른 교회들이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 가족 교재를 선정할 때 새 가족의 마음을 열게 하고 쉽게 하기 위해 부드럽게 접근하며 딱딱하지 않게 접근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선창교회의 새 가족 양육 교재는 새 가족들의 영적인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단호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 나. 새 가족부의 조직<sup>109)</sup>

선창교회 새 가족부에는 새 가족부의 부장이 새 가족부의 양육 전체를 담당하는데, 새 가족이 등록카드를 작성한 순간부터 5주간의 새 가족부 교육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교인이 되는 과정까지를 총괄 담당한다. 새 가족부는 부장을 중심으로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영팀, 영접팀, 자료팀, 조리팀, 바나바팀, 회계팀이다. 각 팀별로 다른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로 시간을 나누고 봉사 자리를 나누어 사역을 하게 된다. 따라서 6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팀처럼 일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특별히 선창교회의 새 가족부가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점은 새 가족부의 조직에 포함된 바나바팀과 조리팀이다. 바나바팀은 새 가족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각 테이블에서 만나 모든 일정에 함께 참여하고, 새 가족들과의 나눔을 실시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회의 새 가족교육은 새 가족들만 참여하게 되어 다소 어색함과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선창교회의 새 가족 교육에는 바나바팀이 함께 교육에 참여해 새 가족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바나바팀을 통해 교회내의 다양한 정보도 직접 전해받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109) 선창교회에서 새 가족부의 부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새 가족부 섬김이로 봉사를 한 사람들 가운데 선임한다. 김혁,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9-65.

또한 새 가족부에 전담 조리팀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식사의 경우 주방팀이 따로 있지만 음식이나 준비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선창교회의 새 가족부의 조리팀은 화려학 경력을 가진 전문 요리사와 주방요원들이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요리실력으로 새 가족들에게 일반 식당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최고급 요리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제공되어 많은 새 가족들이 교육을 수료할 때 감동과 감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표 7>은 선창교회의 새 가족부 조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선창교회 새 가족부 조직

| 팀                   | 팀별 업무  |
|---------------------|--|
| 환영팀                 | 예배당 입구에서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을 환영<br>예배당 안에서 각 구역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환영          |
| 영접팀                 |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부실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 영접<br>새 가족부실 환경꾸미기 / 새 가족교육간 최고의 섬김을 제공 |
| 자료팀                 | 새 가족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br>멀티미디어 장비 구축                                    |
| 바나바팀                | 새 가족교육시 테이블별로 동행<br>교회 안내, 교육 내용 토의 진행                             |
| 조리팀 <sup>110)</sup> | 새 가족부 교육을 위한 조리팀 구성<br>내주 다양하고 감동적인 요리 제공                          |
| 회계팀                 | 새 가족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

#### 다. 새 가족부의 양육 내용<sup>111)</sup>

새 가족부의 양육은 총 5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된다. 5주간 새 가족들이 교육받게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초적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다. <표 8>이 보여 주듯이, 새 가족들에게 이러한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5주간의 교육이 마치게 되면 마지막이 아니라 새 가족들이 본격적인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앙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이때부터 새 가족들은 교회 내에 다양하게 이어지는 교육을 받

110) 선창교회 새 가족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 가족부 전용 조리팀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서울의 호텔 주방장 출신의 요리사와 음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원하여 봉사하여서 새 가족 교육에 참여하는 많은 새 가족들의 반응이 좋다.

111) 김혁,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87-90.

을 수 있도록 안내 받게 되고, 이러한 심화된 교육 통해 새 가족들은 더 깊이 있게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받게 된다.

<표 8> 선창교회 새 가족부 양육 내용

| 주차  | 교육 내용  |
|-----|--|
| 1주차 |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                 |
| 2주차 |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진리의 책 성경              |
| 3주차 |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br>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    |
| 4주차 | 성령님은 교제해야 합니다:<br>성령님은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분이심        |
| 5주차 |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br>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성도들입니다 |

### 3. 평가

선창교회는 교역자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에 중점을 둔다. 이는 새 가족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새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이다. 등록하기 이전부터 새 가족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줌으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예배 중 새 가족으로 소개된 이들은 담당 바나바가 바로 새 가족실까지 안내하며 이후 모든 과정을 책임져 교회에 서먹함 없이 적응하도록 잘 돕는다.

그렇지만 새 가족 양육 내용이 성경과 교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 제기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함이 필요하겠다. 또한 바나바 사역의 근본적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 개인 역량에 따라 새 가족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할 노력이 요구된다.

## 제 3 절 예능교회

### 1. 교회소개

예능교회<sup>112)</sup>는 1974년 8월 희극인인 구봉서 성도 집에서 연예인들과 하용조 전

112) 예능교회의 새 가족 양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자료 등을 참조하였

도사의 인도로 성경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 그 모태가 되며, 1976년 3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연예인 교회로 출발하였다.<sup>113)</sup> 이후 전도대가 '새롭게 하소서' 라는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전교인이 참여한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제작하여 상영한 수익금으로 1980년 3월 종로구 평창동에 대지를 구입하고 기공예배를 드렸으며, 그 해 12월에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후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1889년 12월에는 평창동에 새로운 대지를 구입하여 새 예배당 마련의 터를 닦았으며, 1990년 교회 이름을 연예인교회에서 예수 능력의 준말인 예능 교회로 변경하고<sup>114)</sup>, 1999년 12월 평창동 156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새 교회당에 입당하였다.

이때부터 예능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건희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예능교회는 '축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행 2:46-47)를 교회 표어로 정하고, 초대 교회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인 축제 같은 예배가 있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말씀과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sup>115)</sup> 또한 선교면에서도 다양한 선교의 장을 열고, 2014년 현재 예능교회 단독으로 해외 20교회, 국내 9교회, 20여개의 기관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으면 다양한 선교의 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현재 2,000여명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 헌신과 기도로 '축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인 다음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교육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 새 가족 양육의 실제

으며, 예능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의적 예배 세미나"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예능교회의 양육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필자가 예능교회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예능교회의 새 가족 양육프로그램이 3장에서 언급했던 알파, 일대일 바나바, 멘토링 그리고 제자훈련 등의 양육프로그램들을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킨 좋은 예였기에 선정하게 되었다.

113) 예능교회, *교회 35년 발자취* (서울: 모래커뮤니케이션, 2012), 29.

114) 실제로 교회명을 연예인교회에서 예수능력의 준말인 예능교회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교회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예인들이 더 이상 중심이 되고 연예인들만을 위한 교회에서 벗어나려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Ibid., 201.

115) 예능교회의 두 날개는 교회 전체의 모임인 대그룹인 예배와 소그룹 셀들의 모임인 순을 의미한다.

예능교회는 수년간 조건회 목사를 중심으로 전체교인들을 제자화시키며,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양육시스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예능교회는 몇 년간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교회 내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걸쳐 예능교회에 맞도록 재조직하고 개발하여 기존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처음 찾은 새 가족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크로스 양육시스템이라는 자체적인 양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sup>116)</sup>

예능교회의 크로스 양육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아이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청년단계, 세 번째 단계는 장년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비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론적인 교육의 한계와 교제와 나눔의 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각 단계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다.

먼저 전체적인 예능교회의 크로스 양육시스템의 전체 단계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새 가족 양육의 첫 번째 단계인 아이 단계에서 진행되는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 가. 새 가족 양육을 위한 크로스 양육 시스템

먼저, 첫 번째로 아이 단계를 통해 새 가족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새 가족들은 4주간의 섬김반과 4주간의 확신반(복음학교) 그리고 12주-16주간의 성장반 일대일 양육을 통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첫 번째 단계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1박 2일간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 삶의 전 영역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 단계에 이은 청년단계로 1년간의 훈련학교의 단계로 예배, QT, 기도, 전도학교 등이 진행된다. 이 훈련을 통해 새 가족들은 아이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며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도 1박 2일간 리인카운터 수양회가 있으며,

116) 예능교회는 교회 자체 내에 전체의 교회의 양육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리하기 위한 양육사역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를 비롯한 담당 교역자가 양육사역원을 총괄하면서 교육이 진행되고 마칠 때마다 지속적인 보완과 개발을 통해 예능교회에 맞는 최적화 양육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 가족들은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관계전도훈련을 위한 도구들을 소개받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장년단계로 1년간 제자훈련이 행된다.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의 잠재된 리더십과 사명감을 발굴하게 되어 셀 리더로 성장하게 되며, 또한 교회 구성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1박 2일간의 리더 수양회를 거치게 된다. 리더 수양회는 예능 교회의 리더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가를 목표로 진행되며, 전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회의 연간계획에 반영될 비전을 나누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 등도 함께 구상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제자훈련 다음 과정으로 1년간 사역훈련이 진행된다. 사역훈련은 담임목사와 함께 하는 소그룹 훈련과정으로 성령론과 교회론, 셀 리더를 위한 클리닉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본인의 영적 은사에 따라 다른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멘토로 세워 주게 되는 양육 훈련이다. 사역훈련을 마친 성도들은 심화된 사역자반과 지도자반을 통해 준비되어 교회내의 많은 양육프로그램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 <그림 3>은 이러한 예능교회 크로스 양육시스템을 그림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 나. 새 가족 정착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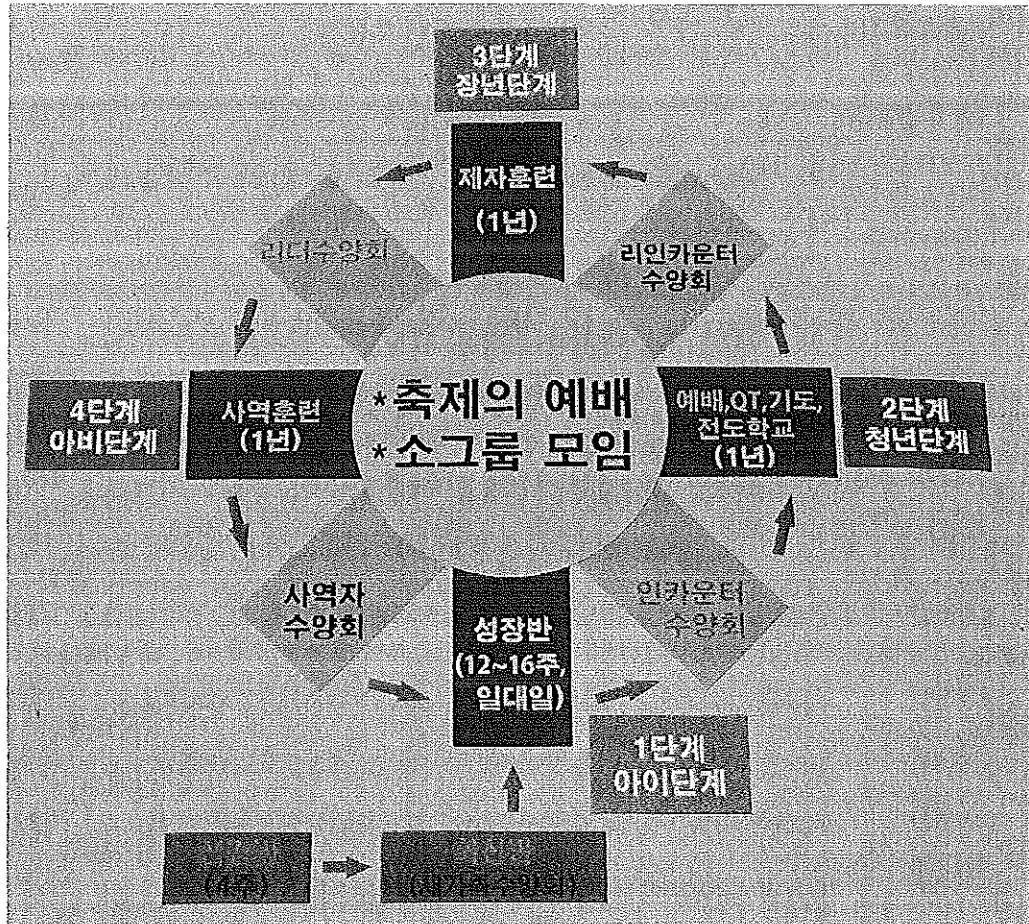
예능교회의 크로스양육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각 단계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들 중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단추인 아이단계에서의 양육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새 가족들이 정착을 해야 다음 단계의 양육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1) 섬김이 사역

섬김이 사역은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아이단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먼저 새 가족이 교회를 처음방문하게 되어 예배에 참여하고, 새 가족 환영팀에 의해 영접된 후 가 등록 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새 가족들은 훈련된 섬김이들을 통해 교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섬김이 사역은 예능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목자의 심정으로 인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안내함으로 이미 교회에 정착한 기존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섬기도록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정착 프로그램이다.

<그림 3> 예능교회 크로스 양육시스템<sup>1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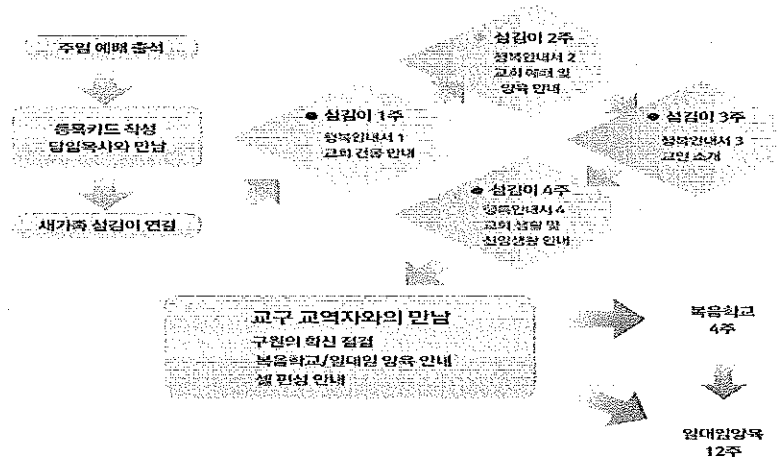


섬김이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섬김이들은 새 가족들과 4주간의 일대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며, 4주간의 섬김의 시간이 끝나면 새 가족 섬김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교구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새 가족들에게 다음 단계인 복음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림 4>는 예능교회 섬김반의 단계를 그림으로 보나주고 있다.

117) 예능교회, 2014 목회계획서, (미간행) 11.



&lt;그림 4&gt; 예능교회 섬김반



### (2) 복음학교

복음학교는 새 가족 섬김이들에게 4주간의 새 가족 섬김이 사역을 수료한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복음학교 과정은 1단계 양육과정의 마지막인 일대일 양육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sup>118)</sup>

복음학교는 매주일 주일 예배후에 실시되고 있으며, 어느 주에 참석하든지 4주 과정을 모두 듣고 참여하면 과정을 마치게 된다. 모든 강의는 담당 교역자에 의해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일에 참석이 어려운 새 가족들을 위해 반기별로 1회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집중코스가 개설되기도 한다. <표 9>는 복음학교 교육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다.

### (3) 일대일 양육

일대일 양육 과정은 새 가족 정착의 첫 단계인 아이단계의 마지막 과정이다. 복음학교 과정을 수료한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평신도 양육자가 동반자(일대일 양육 대상자)를 일대일로 만나 성경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교재는 두란노에서 펴낸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sup>119)</sup> 총 16번의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sup>120)</sup> 이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새 가족들은 교회의 참된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되며

118) Ibid., 11.

119) 은누리 일대일 양육사역팀, *일대일 제자양육*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5)

120) 예능교회에서는 일대일 양육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에 한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내의 다양한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sup>121)</sup> <표 10>은 일대일 양육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표 9> 복음학교 교육내용

| 주차  | 교육 내용  |
|-----|--|
| 1주차 | 하나님이 지은 사람<br>-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
| 2주차 | 죄인이 된 사람<br>죄란 무엇이며, 죄의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
| 3주차 | 구원받은 사람<br>구원자 예수는 누구이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
| 4주차 | 믿음으로 사는 사람<br>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3. 평가

예능교회는 멘토링 사역을 중심으로 훈련된 섬김이들 100명 이상이 섬기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소개를 강의로 한다. 반면 예능교회는 4주 동안 섬김이의 멘토링을 통하여 실제로 돌아보고, 예배와 교회생활 안내를 한다는 것이다. 멘토와 멘티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한 후 복음학교로 안내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그렇지만 새 가족들에게는 섬김반 4주, 복음학교 4주, 일대일 12주 등 다소 긴 과정으로 새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 제 4 절 종합정리

본 장에서는 세 개의 교회, 신앙교회, 선창교회, 그리고 예능교회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육하고 제자화 하여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역하고 있다. 신앙교회는 알파코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자체 개발한 새 가족 양육을 위한 MS 4steps의 단계

기회를 부여한다.

121) 예능교회내의 모든 봉사활동 및 섬김 사역은 반드시 일대일 양육을 수료한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다.

를 통하여 새생명반을 통해 새 가족 정착에 중점을 두며 사역하고 있다.

<표 10> 일대일 양육 과정 교육내용

| 주차  | 내용            | 과제              |                         |                   | 비고            |
|-----|---------------|-----------------|-------------------------|-------------------|---------------|
|     |               | 성경읽기            | 성구암송                    | 참고서적읽기            |               |
| 1주  | 오리엔테이션        | 눅 1-3,<br>히 1-3 | 요 1:1,<br>마 16:16       |                   |               |
| 2주  | 예수님의 본성       | 막1-7            | 사 53:5-6                |                   |               |
| 3주  | 예수님의 과거<br>사역 | 고전 15,<br>계 1-6 | 롬 6:4,<br>엡 1:22        |                   |               |
| 4주  | 예수님의 현재<br>사역 | 막8-14           | 요 1:12, 3:16            |                   |               |
| 5주  | 예수님<br>믿으십시오  | 마1-7            | 요 15:5<br>갈 2:20        | 안믿을수<br>없는 예수     | 신앙고백서<br>제출   |
| 6주  | 구원의 확신        | 요1-7            | 요 5:24<br>요일 5:13       | 제자도 1장            |               |
| 7주  | 하나님의 속성       | 요 8-14          | 대상 29:11-12<br>시 36:5-6 | 제자도 2장            |               |
| 8주  | QT            | 시 1, 5, 119     | 시 119:103-105           | 제자도 7장            | Q. T시작        |
| 9주  | 성경            | 요 15-21         | 담후 3:16<br>벧전 2:2       | 내마음<br>그리스도의<br>집 |               |
| 10주 | 기도            | 빌립보서            | 요15:7<br>빌4:6-7         | 제자도 6장            |               |
| 11주 | 교제            | 요한이삼서<br>유다서    | 롬 12:4-5<br>요 13:34-35  | 제자도 3장            |               |
| 12주 | 전도            | 에베소서            | 롬 1:16<br>벧전 3:15       | 제자도 9장            | 사영리교육<br>전도실습 |
| 13주 | 성령 충만한 삶      | 야고보서            | 엡 5:18<br>갈 5:22-23     | 제자도 5장            |               |
| 14주 | 시험을 이기는<br>삶  | 골로새서            | 고전10:13<br>약1:14-15     | 제자도 8장            |               |
| 15주 | 순종하는 삶        | 베드로전후<br>서      | 롬 12:1<br>눅 9:23        | 제자도 11장           | 사역현장<br>답사    |
| 16주 | 사역            | 디모데전후<br>서      | 벧전 2:9<br>고전 3:9        | 제자도 4장            | 간증문 제출        |

선창교회는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양육 사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창교회는 새 가족 사역내에 바나바팀을 편성하여 바나바사역을 중심으로 새 가족 양육을 하고 있으며, 예능교회는 멘토링을 기본으로 알파코스, 제자 훈련, 그리고 일대일 바나바 사역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크로스 양육시스템을 통해 복음학교와 일대일 양육 과정으로 새 가족을 양

이들 교회의 사역의 공통점은 먼저 교회의 상황에 맞게 사역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신앙교회는 알파 교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가져다 사용하지 교재는 직접 집필하여 교회를 소개하고 1박 2일의 성령수련회는 만남수련회로 적용하였다. 선창교회는 바나바 교재 7과의 내용을 5과로 조절하였다. 예능교회는 멘토링 사역을 섬김반으로 적용하여 복음학교 전 멘토와 멘티의 과정을 형성하였다. 기존의 사역은 그 교회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사역자의 철저한 훈련이다. 신앙교회는 새 가족을 섬기기 위해선 양육 2단계 의식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선창교회는 바나바팀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예능교회는 일대일과정을 마치고 섬김반을 운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새 가족을 이끌 리더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체계화에는 약점이 있다. 한번 만들어진 체계는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양육체계가 단편 체계가 아닌 끊임없이 새 가족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이상의 교회들의 새 가족 특징을 살펴보면서 큰은혜교회에 적용해 보면 새 가족 섬김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교회비전을 공유하고, 새 가족을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양육체계의 상황과 실정에 맞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 제 5·장

### 큰은혜교회의 소개와 현황

본 장에서는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새 가족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 가족 양육 시스템과 새 가족들의 정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지역상황

##### 1. 지리적 여건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큰은혜교회는 서울시의 남부에 위치한 구로, 행정구역 상으로는 관악구 낙성대동에 속해있다. 관악구에서도 특별히 큰은혜교회는 봉천동에 속해 있는데, 봉천동은 관악산의 산세가 높고 험해서 마치 하늘을 받들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이 전에는 점쟁이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다. 또한 그 때문인지 한 때 전국의 통일교 동아리 중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리가 큰은혜교회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있었으며, JMS 동아리 또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오늘날 관악구는 강남, 사당, 과천, 안양, 구로 등 수도권 중심부를 연결해 주는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재미있게도 큰은혜교회에서 불과 1킬로미터 이내 하나님의 교회 서울 본부와 통일교 관악지구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

&lt;표 11&gt; 관악구의 인구 증가 및 각 동별 인구분포도

| 동별   | 면적(km <sup>2</sup> ) | 세대수     | 인구수(명)  | 행정조직 |       |
|------|----------------------|---------|---------|------|-------|
|      |                      |         |         | 통    | 반     |
| 계    | 29.57                | 247,492 | 528,361 | 635  | 5,176 |
| 보라매동 | 0.78                 | 11,653  | 26,988  | 29   | 247   |
| 은천동  | 0.79                 | 15,020  | 36,651  | 48   | 446   |
| 성현동  | 0.68                 | 12,916  | 35,101  | 45   | 335   |
| 중앙동  | 0.39                 | 7,436   | 14,854  | 19   | 159   |
| 청림동  | 0.32                 | 6,716   | 17,274  | 24   | 184   |
| 행운동  | 0.69                 | 15,507  | 30,214  | 37   | 287   |
| 청룡동  | 1.18                 | 17,951  | 33,745  | 41   | 371   |
| 낙성대동 | 1.80                 | 9,927   | 17,994  | 20   | 151   |
| 인현동  | 1.53                 | 13,049  | 28,472  | 28   | 254   |
| 남현동  | 3.27                 | 8,027   | 17,920  | 17   | 143   |
| 신림동  | 0.54                 | 12,692  | 18,878  | 21   | 184   |
| 신사동  | 0.64                 | 12,222  | 25,308  | 30   | 222   |
| 조원동  | 0.67                 | 9,082   | 18,254  | 25   | 224   |
| 미성동  | 1.35                 | 13,897  | 34,720  | 42   | 291   |
| 난곡동  | 0.98                 | 13,004  | 31,661  | 39   | 339   |
| 난향동  | 0.82                 | 6,826   | 18,083  | 25   | 198   |
| 서원동  | 0.65                 | 12,412  | 24,047  | 24   | 176   |
| 신원동  | 0.54                 | 9,510   | 20,094  | 23   | 179   |
| 서림동  | 0.98                 | 13,287  | 24,752  | 30   | 245   |
| 삼성동  | 3.05                 | 12,388  | 30,185  | 38   | 297   |
| 대학동  | 7.92                 | 13,970  | 23,166  | 30   | 244   |

## 2. 주위 인구 분석

<표 11>은 현재 관악구의 인구 증가 및 각 동별 인구분포도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sup>122)</sup> 이 <표 11>의 인구분포도 중에서 유심히 봐야 할 곳은 큰은혜교회가 위치한 낙성대동과 현재 많은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낙성대동, 인현동, 행운동, 신림동, 청룡동이다. 본 교회의 회중들이 거주하는 현재 관악구의 인구 증가 및 각 동별 인구분포도를 분석해 보면, 10년간의 인구변동률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교회의 회중들의 유동인구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이 가진 특색이나, 삶의 여건이 평이하며, 지역적인 조건이 크게 매력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의 무속신앙이 팽배했던 지역이었음과 또한 이단 사이버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파악할 수 있고, 주로 중산층, 하위층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위치한 지역 근처에 종합대학교가 네 곳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학생시절에만 거주하다가 졸업후 다시 이주를 하는 인구들이어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원주민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 2 절 큰은혜교회의 역사와 현황

### 1. 큰은혜교회의 역사<sup>123)</sup>

큰은혜교회의 시작은 60여 년 전, 민족상잔의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맺어진지 겨우 2년여가 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당시 백용종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상도교회 청년들의 축호전도로 시작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3일 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 4리 212-218번지 사이, 지금의 봉천 7동 개천가에다 천막예배당을 세우고, 그 교회의 이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봉천교회라고 불렀다.<sup>124)</sup>

교회가 세워진지 일주일 후 상도교회 청년회는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할 최초의

122) www.gwanak.go.kr 관악구청 (2011. 10. 1. 기준)

123) 큰은혜교회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봉천제일교회 50년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장세운, 봉천제일교회 50년사 (서울: 도서출판 한천, 2005).

124) 큰은혜교회의 최초의 교회명은 봉천교회였으며, 후에 봉천제일교회로 그리고 현재의 큰은혜교회로 교회명이 변경되었다.

교역자로 김영엽 전도사를 파송했다. 이후에도 상도교회 청년들의 정성과 봉사의 손길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게 되고, 서리집사를 세우기도 하였지만, 천막교회였던 교회의 사정은 호전되는 기미는 없고 계속 어렵기만 했고, 결국 김영엽 전도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봉천교회는 교역자가 없는 무목시대를 맞아야 했다.

1958년 교회에 출석하던 유종섭 장로가 강단을 맡아 봉사하면서 평안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는 홍대운 집사가 강단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 사정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 곳에서 도움과 봉사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1960년 1월 평안노회를 탈퇴하면서<sup>125)</sup>, 교회의 이름을 봉천동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제일 가는 교회라는 뜻으로 봉천제일교회로 개명하였다. 그 해 폭풍으로 인해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는 쓰러지게 되고, 교계의 형편도 폭풍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천막교회가 철거되고 최동진 집사의 자택에서 가정예배로 모이게 되었다. 같은해 10월 최선근 장로가 시흥군 동면 봉천리 212번지 대지 238평을 교회를 위해 헌납을 하게 되고, 12월 24일에 예배당은 완공되었다.

교회당 건축을 하고 점차 터를 다지며 성장하는 봉천제일교회는 1962년 10월 개척한지 7년 만에 최초로 조남기 목사가 부임하게 되면서 내실을 다지고 틀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1년 만에 조 목사가 사임하게 되며 또 다시 목회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1966년 박영선 목사가 부임했으나, 부임한지 2개월만에 과반수의 성도를 데리고 새로 개척을 하게 되었다. 또 다시 목회자를 잃게 되었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믿음생활에 더욱 열심을 가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69년 이재철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으며, 1971년 11월 위임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위임한 지 3년이 지난 1974년 이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74년 10월 김일광 목사가 부임하게 되면서 교회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7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게 되었다. 새로운 예배당을 가진 봉천제일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며, 교회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적인 선교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82년 김일광 목사에 이어 배영국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교회는 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회

125) 평안노회를 탈퇴하게 된 이유는 교회에 출석하던 평안도 출신의 유종섭 장로가 다른 교회로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평안노회에 소속되어 있을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장세윤, 봉천제일교회 50년사, 61.



의 조직의 틀을 정비하며 착실한 기구개편과 교육으로 발전과 중흥을 모색하였다.

1985년 9월 장세운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그간 흐트러졌던 교회의 조직과 틀이 재정비가 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현대식으로 된 새 교회가 완성되어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숙을 위한 일대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2007년 장세운 목사가 은퇴하고 원로목사가 되고, 후임으로 이규호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다음 해인 2008년 11월엔 교회명을 큰은혜교회로 개명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크신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 2. 큰은혜교회의 비전

큰은혜교회는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이다. 그렇기에 큰은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 되시기에 세상의 기쁨이요 참 희망이 되는 교회이다.

큰은혜교회에 속한 성도들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 안에 한 마음을 이루었기에 세상의 희망이요, 시대의 희망이 되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은혜를 베푸시며, 친히 이끌어 가시는 큰은혜교회 위에 다함없는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큰은혜교회에는 크게 네 가지의 핵심 비전이 있다. 첫째,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다. 큰은혜교회의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어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꿈꾼다. 둘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이다. 큰은혜교회는 가정의 행복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나라의 행복을 이루는 기초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주안에 있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을 누리게 되는 행복한 교회를 꿈꾼다. 셋째,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교회이다. 큰은혜교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이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비전이며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은혜교회는 가슴 가득 하나님의 꿈을 꾸는 새벽 이슬같

은 주의 청년들이 민족과 세계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 교회를 꿈꾼다. 넷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다. 복음의 은혜는 계승되어야 한다. 이에 큰 은혜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탁월한 차세대 지도자를 찾고 세워가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를 꿈꾼다.

### 3. 큰은혜교회의 상황

2007년 이규호 목사가 부임하고 교회명칭을 큰은혜교회로 개명한 이후에 큰은혜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회가 예배, 가정, 젊은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아가 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더 큰 꿈을 꾸며 열방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도약하게 되었다.

현재 큰은혜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려면, 현재 교회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역을 살펴봄을 통해 교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큰은혜교회는 여러 사역들 중에서 특별히 네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중심 사역은 예배이다. 예배사역은 이규호 목사가 부임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한 사역이기도 하다. 담임목사가 부임하고 3년 동안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직접 인도하고 설교하였으며, 이러한 담임목사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 큰은혜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sup>126)</sup>

두 번째 중심 사역은 선교이다. 큰은혜교회는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전도로,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선교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하여 문화가 같다고 말할 수 없고, 세대 간에도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여름에는 국내와 해외에 아웃리치를, 겨울에는 해외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를, 어린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참여하고 있다.<sup>127)</sup>

126) 현재도 담임목사가 새벽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예배를 직접 인도, 설교하고 있다.

127) 최근에는 선교의 장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미자립교회와 선교자를 지원하는데 국한되었던 섬김의 장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NGO 단체들과 협력하는 사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세 번째 중심 사역은 섬김이다. 특별히 큰은혜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는 지역사회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섬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절기 행사 때 마다 교회내의 교인들만을 위한 잔치와 축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섬김행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네 번째 중심사역은 비전을 심는 사역이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각오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다양한 비전트립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교회내의 성도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재능기부로 가난이나 여러 제한된 요건으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128)</sup>

이규호 목사가 부임한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큰은혜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보다 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양적, 질적인 교회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수천명의 큰은혜교회의 성도들 역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다.

### 제 3 절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부

#### 1. 새 가족 정착 사역의 목적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부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큰은혜교회에 등록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방문하여 머물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교회 내에서 어색하여 방황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 가족부들은 새 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새 가족들이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새 가족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만 주중에 있는 다른 모임과 예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기존의 성도들은 교회 게시판이나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도 있지만, 교회의 모든 구조와 환경이 새롭고 낯선 새 가족들

128) 지난 7년간 비전을 심는 사역의 결과 주일학교를 거친 학생들이 청년부로 까지 성장하게 되었으며, 청년이 되어서도 청년부 활동과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부흥하게 되어 젊은 세대 교구를 신설하기 까지 이르렀다.

은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제한되어 있다: 이때 새 가족부는 새 가족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지원 및 탁아 봉사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셋째, 새 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며 돕는다. 교회에는 예배 외에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성경공부와 같은 모임뿐만 아니라 친교 모임 및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모임들도 있다. 새 가족부는 새 가족들이 교회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경공부 모임과 다양한 문화 활동에 새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으로 새 가족들이 교회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넷째, 큰은혜교회의 목회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한다. 새 가족들이 단순한 예배에만 참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교회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뜻을 품은 공동체원으로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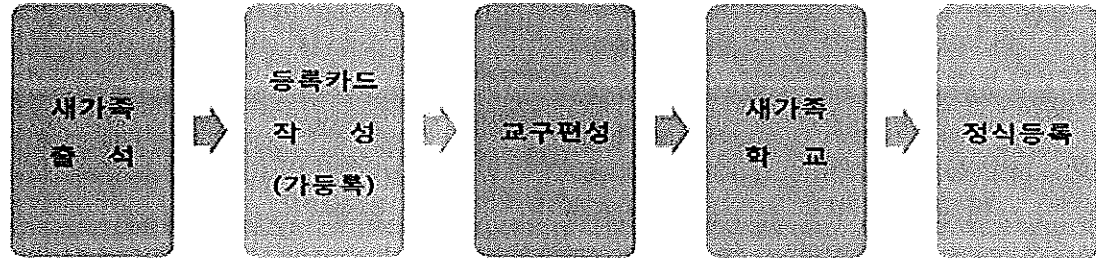
## 2. 새 가족 정착 사역의 내용

### 가. 새 가족 등록단계

새 가족은 등록함에 있어서 경계심을 드러낼 때가 많다. 새 가족들을 먼저 알아봐주고 인사할 때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본다. 예배당 입구에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들이 교우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때 교구목사들이 알지 못하는 얼굴이 보이면 영접팀에게 알려준다. 영접팀은 새로운 이들을 예배 후 등록을 권면한다. 등록하기로 한 새 가족을 영접팀은 영접실로 안내한다. 예배당은 4층에 위치하고 영접실은 3층에 있다. 새 가족은 교회 공간을 잘 알지 못하기에 영접팀은 새 가족을 직접 인도한다. 영접팀은 영접실에서 등록카드를 작성 안내를 해 드린다. 담임목사와 만남 전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어린 자녀가 동반되었을 때 가벼운 간식을 제공한다. 담임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환영인사와 환영기도를 나누게 된다. 이후 새 가족은 사진 촬영을 한다. 이를 통하여 새 가족의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새 가족이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사양할 때는 요구를 반영한다. 이후 교구 담당 목사를 만나 1주일 이내 등록심방을 정하게 되고, 교회생활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는다. 또한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등록카드를 작성한 새 가족은 먼저 교구에 편성되고<sup>129)</sup> 그룹모임과 교구 담당목

사와 새 가족 섬김이들을 통해 새 가족 양육에 대한 권면을 받게 되며, 이후에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 양육의 핵심인 새 가족학교에 등록하게 된다. <그림 5>는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 등록단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큰은혜교회 새 가족 등록단계



새 가족이 새 가족교육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강요보다는 권면을 통해 진행된다. 권면은 먼저 교구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안내 및 권면을 받는다. 이후 새 가족이 속한 그룹모임을 통해 새 가족 교육의 유익을 나누게 하여 자연스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지속적인 새 가족 섬김이들의 섬김을 통해 새 가족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들을 소개받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새 가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 나. 새 가족학교

새 가족학교는 새 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교구에 편성된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1년에 3-4번 정도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 4주 과정으로 열리게 된다. <표 12>는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교육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129) 등록카드를 제출한 새 가족이 교구에 편성될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편성된다. 첫째 인도자에 의해 새 가족 등록을 한 새 가족은 우선 인도자가 속한 그룹에 배정하게 되며, 1년 지난후 새 가족의 정착이 잘 되었을 땐 사는 지역으로 배정한다. 둘째 35세 기혼부부는 신혼교구에 배정이 되며, 셋째 그 외에 스스로 교회에 참석해 새 가족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는 지역을 우선으로 배정하며, 새 가족을 잘 돌보는 그룹장에게 배정한다. 그렇지만 새 가족의 특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lt;표 12&gt;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교육일정(주일별)

| 시간    | 내용             | 담당         |
|-------|----------------|------------|
| 12:30 | 식사안내           | 식당 봉사팀     |
| 13:30 | 교육장소 준비        | 장식팀        |
| 13:40 | 티타임, 탁아시작      | 다과팀, 탁아팀   |
| 14:00 | 광고             | 담당자        |
| 14:05 | 주제강의1          | 담당 교구목사    |
| 14:30 | 주제강의2          | 담당 교구목사    |
| 14:55 | 마침             | 마무리, 셋팅 철수 |
| 15:05 | 새 가족학교 지원팀 기도회 | 전체         |

새 가족학교를 위해 새 가족학교 지원팀이 준비되어 있으며,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지원팀은 새 가족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을 받지 않도록,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안내와 봉사를 통해 섬기게 된다. <표 13>은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교육 지원팀 현황을 표로 만든 것이다.

&lt;표 13&gt; 큰은혜교회 새 가족교육 지원팀 현황

| 팀   | 역할  |
|-----|---|
| 음향팀 | 마이크 음향 상태를 점검하고 훈련이 시작하기 전 잔잔한 음악 준비        |
| 영상팀 | 새 가족학교에 대한 자료를 사진과 영상을 남김<br>사역보고를 위한 자료 편집 |
| 장식팀 |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 테이블 장식 및 교육환경 조성        |
| 다과팀 | 테이블 별 다양한 간식 준비 및 다과와 차 준비                  |
| 탁아팀 | 새 가족과 동반한 아동 탁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새 가족 교육에서 사용되는 주교재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출간된 새 가족모임교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sup>130)</sup>를 사용한다. 첫째 주에는 새 가족에게 담임목사님의 환영 메시지와 함께 새 가족 교육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분들, 섬김이들을 소개하며, 함께 참여하는 분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환영의 시간을 갖게

130)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1).

된다. 또한 교회 생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생활 책자를 통해 교회 시설에 대한 안내, 예배생활, 헌금생활, 그룹생활을 안내받게 된다. 아울러 교회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교회 자랑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둘째 주는 교구 담당 목사가 주제별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예수가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된다.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를 따르되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가지는 않는다. 참여한 대상의 나이와 시사적 내용을 주제에 맞게 강의하게 된다. 셋째 주는 실제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최근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을 초청하여 직접 간증을 듣거나 영상으로 간증을 들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는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배우고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 배우게 된다. 4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통해 배우는 교육도 큰 이점이 있지만 교구 담당 교역자와 섬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큰 장점이 있다. <표 14>은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학교 4주 교육일정을 담고 있다.

<표 14>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교육일정(주차별)

| 주차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담당교역자  |
|-----|--|------|--------|
| 1주차 | 1강-교회소개 및 새 가족 교육소개<br>(교회소개 영상, 담임목사님 인사말씀(영상)) | 50분  | 김현석 목사 |
| 2주차 | 2강-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 25분  | 김영국 목사 |
|     | 3강-믿음이란 무엇인가?                                    | 25분  | 김부기 목사 |
| 3주차 | 4강-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 25분  | 김성학 목사 |
|     | 5강-신앙 간증<br>(부활 예배시 방영된 교회성도님들 영상 & 말은 이 간증)     | 25분  | 말은 이   |
| 4주차 | 6강-교회생활, 어떻게 할까요?                                | 25분  | 강승남 목사 |
|     | 7강-교회와 그 중요성                                     | 25분  | 장윤숙 목사 |

4주간의 교육을 마친 새 가족들은 분기별 1회 주일 저녁예배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새 가족교육을 받은 새 가족은 공식적인 정식 등록 교인이 되어 교회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수료식은 저녁예배 시간에 갖는다. 저녁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갖는 이유는 저녁 예배시간에는 평소에는 여러 특별 순서가 많기에 예배순서의 유연성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새 가족에게 저녁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새 가족은 주일 오전에 잇는 1-4부예배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료식은 새 가족의 얼굴을 기존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새 가족학교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수료자 간증의 시간도 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이유와 상황, 교회 등록한 후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 등록한 이후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나눈다. 새 가족의 간증을 통해 기존의 성도들에겐 잊고 지낸 신앙의 첫 마음을 상기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떠한 것이 새 가족을 감동하게 하는지 깨닫게 된다. 수료식이 끝나면 새 가족이 속한 그룹장과 그룹원들이 미리 준비한 꽃으로 축하한다. 이를 통해 그룹원이 되었음을 알게 하고 그룹원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한다. <표 15>은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학교 수료식 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5>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수료식 일정

| 시간    | 교육 내용   |
|-------|---|
| 18:00 | -새 가족학교 수료자 찬양연습(전체특송 준비)   |
| 18:40 | -본당에 들어가 준비된 자리에 착석 후 기도로 예배 준비   |
| 19:00 | -예배시작<br>-새 가족학교 교육 영상보고(2분)<br>-수료증수여(수료자 중 최고 연장자)<br>-수료자 간증(5분)<br>-수료자 전체 특송<br>-담임목사님의 축복기도<br>-예배 후 담임목사님과 수료자 전체 기념촬영 |
| 20:00 | -예배 후 수료자 잔체에게 선물 수여  |

그리고 새 가족학교를 수료한 수료자들에게는 새 가족학교 소감 나누기라는 형



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수료자들이 새 가족학교에 대해 느낀 소감과 피드백을 받는다. 설문조사 결과는 차후 새 가족학교 운영에 반영하게 되어 새 가족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표 16>은 새 가족의 새 가족학교 소감 나누기를 담고 있다.

<표 16>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소감 나누기

| 새 가족학교 소감 나누기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이번 새 가족학교 교육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가족교육을 통해 느끼신 점과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강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2.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3. 강의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4. 새 가족학교에 대해 바라시는 점이 있다며 무엇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5. 새 가족학교에 대해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p> |

#### 제 4 절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 현황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가족들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새 가족들이 기존의 다른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이 아닌 순수한 새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정식교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큰은혜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새 가족들의 등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31)</sup> 본 절에는 최근 6년간

큰은혜교회에 등록했던 새 가족들의 현황과 정착률 등을 살펴보려 한다.

지난 6년간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 현황과 정착율은 <표 17>에 나타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 중에 평균 295명이 등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등록한 새 가족들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활동하는 정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큰은혜교회가 해마다 성장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17> 큰은혜교회 새 가족 등록 현황과 정착율(최근 6년간)<sup>132)</sup>

| 연도             | 내용                | 정착율   |
|----------------|-------------------|-------|
| 2008           | 장년 241명 중 133명 정착 | 55퍼센트 |
| 2009           | 장년 338명 중 170명 정착 | 50퍼센트 |
| 2010           | 장년 381명 중 235명 정착 | 62퍼센트 |
| 2011           | 장년 292명 중 197명 정착 | 67퍼센트 |
| 2012           | 장년 293명 중 261명 정착 | 89퍼센트 |
| 2013<br>(9월까지) | 장년 223명 중 220명 정착 | 99퍼센트 |

또한 새 가족으로 등록한 새 가족들 중에서 새 가족학교를 수료한 이후에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을 보여 주고 있는 <표 18>을 살펴보면,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지 않고 여러 모임이나 관계들을 통해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지난해는 9월까지 223명의 새 가족학교를 수료한 새 가족들 모두가 정식 교인이 되어 예배와 교회내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새 가족학교가 새 가족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 정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새 가족학교의 교육방향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게 잘 적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131) 수평이동을 통한 새 가족들이 아닌 처음으로 교회를 찾게 된 새 가족의 수는 2008년 241명 중 127명, 2009년 338명 중 168명, 2010년 381명 158명, 2011년 292명 중 132명, 2012년 293명 중 127명, 2013년 9월 현재 223명 중 101명이다.

132) 참고로 청년들의 등록 현황은 2008년에 235명, 2009년에 314명, 2010년에 385명, 2011년엔 243명, 2012년엔 256명, 2013년 9월까지 173명이다.

&lt;표 18&gt;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 수료 현황과 정착율(최근 6년간)

| 연도             | 내용                   | 정착율    |
|----------------|----------------------|--------|
| 2008           | 장년 138명 수료 중 84명 정착  | 60퍼센트  |
| 2009           | 장년 146명 수료 중 108명 정착 | 74퍼센트  |
| 2010           | 장년 118명 수료 중 94명 정착  | 80퍼센트  |
| 2011           | 장년 121명 수료 중 98명 정착  | 81퍼센트  |
| 2012           | 장년 103명 수료 중 93명 정착  | 90퍼센트  |
| 2013<br>(9월까지) | 장년 107명 수료 중 107명 정착 | 100퍼센트 |

### 제 5 절 큰은혜교회 새 가족 양육의 원리

새 가족 양육은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명한 원리의 기반을 가진 새 가족 사역은 사역의 나아갈 방향과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새 가족 양육의 원리를 살피고 이후 새 가족 양육의 원리를 큰은혜교회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피보려 한다.

#### 1. 새 가족 양육 원리<sup>133)</sup>

##### 가. 공동체성

새 가족 양육은 공동체성을 지향하는데, 이는 신앙생활이 혼자만의 칩거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새 가족들이 기존 교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새 가족은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힘들어 하겠지만 차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것이다. 새 가족 사역자들은 부지런히 새 가족을 돌보고 보듬어 안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새 가족을 받아들이고 섬긴다. 사역자들은 소그룹을 통해 새 가족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133) 신재승,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 가족 양육,” 81-83.

### 나. 영성

새 가족 사역의 비전과 목적은 일차적으로 영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새 가족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새 가족 사역의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영감 있는 예배가 들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서 예배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틀에 박힌 상투적인 예배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맞볼 수 없다. 따로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 신자들의 예배를 새 가족들이 매우 낮설어 하기 때문이다. 새 가족들은 새 가족 예배를 통해 따뜻하고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점차 기존 예배에도 적응하게 된다.

### 다. 제자화

새 가족 양육은 새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마 28장). 이를 가슴에 새겨 새 가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처럼 새 가족 양육은 공동체성, 영성, 제자화의 원리에 기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새 가족은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 2. 새 가족 양육 원리의 구현

새 가족 양육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큰은혜교회는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선교회, 여전도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새 가족은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게 되면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에 회원으로 입회된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일정 나이로 나뉘어 활동하는데 매주 월례회로 모이고, 선교와 회원들의 교제에 힘을 쓰는데 이때 새 가족 회원 환영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나이와 지역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구 내 그룹활동을 강조한다. 그룹모임은 1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눔으로 서로의 신앙생활을 돕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그룹특송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한다. 그룹 특송은 분기마다 4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소품과 울동

을 함께 준비하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그룹이 서로 알아가고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그룹의 식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

영성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한다. 담임목사는 설교 사역을 강조한다. 새 가족이 보다 쉽게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 전 예배순서<sup>134)</sup>를 간략하게 하였다. 수요일, 주일오전, 주일저녁설교, 새벽설교까지 직접 인도한다. 수요일예배는 성경 66권을 보다 쉽고,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집필한 인쇄물을 매주 나눠주고 강의형식으로 4년째 진행하고 있다. 말씀묵상을 위하여 더큰은혜라는 월간 큐티집을 발행하고 있으면 큐티집의 매일 본문과 동일하게 새벽기도회 설교본문으로 진행한다. 기도의 경우에는 전도대를 위한 전도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사역중보팀이 구성되어 진행하고, 155명의 중보사역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새벽기도회<sup>135)</sup>, 금요중보기도회 등을 통해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려 한다.

제자화를 위해 1인 1사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권사들은 매월 모여 기도회로 모여 기도회로 돕고, 미화 사업을 통하여 굿은일을 감당한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 훈련된 중보기도사역자들은 공개기도, 비밀기도로 구별하여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회로 중보한다. 또한 매일 오전7시-밤11시까지 중보기도실을 운영하여 중보기도 담당자가 1시간씩 나와 1시간 중보기도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연말에 사역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새 가족학교를 수료한 새 가족은 은사를 따라 찬양대, 예배안내, 미화봉사, 사랑전도대, 중보기도학교에 지원하여 사역할 수 있다. 큰은혜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설교와 세미나 등을 통해 격려하고, 각종 봉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권면하고 있다.

## 제 6 절 큰은혜교회 새 가족 정착 교육의 제한 요소들

큰은혜교회는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관심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새 가족들 중에 많은 인원이 새 가족 양

134) 주일 1-4부 예배 순서는 찬양, 대표기도 찬양대찬양, 설교, 찬양, 헌금기도, 축도이다.

135) 새벽기도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부 새벽 5시, 2부 새벽 6시로 진행한다. 매월 1일은 자녀를 위한 새날새벽예배로 모인다. 이때는 100여명의 자녀들이 찬양대로 봉사하고 1,000석이 넘는 자리가 부족하여 본당 로비와 통로에 보조 의자를 두기도 하고, 찬양대실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린다.

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회생활에 긍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새 가족 양육 사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과 실질적인 제한요소들이 따르고 있다. 이에 몇 가지 제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1. 새 가족 섬김이 교육 부재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점은 새 가족교육의 핵심인 새 가족학교를 섬기는 섬김이들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새 가족학교에는 새 가족 학교의 진행을 위해 봉사하는 새 가족학교 지원팀이 있다. 그러나 지원팀에 속해 있는 많은 섬김이들이 다른 사역들과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지원팀에 속해 있는 섬김이들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기엔 많은 제한이 따른다.<sup>136)</sup> 경우에 따라 다른 사역팀에서 섬김이를 동원하거나 필요에 따라 교회내에서 자원하는 섬김이들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처음에 새 가족학교가 준비되고 시작될 때의 섬김이들의 비전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처음 새 가족학교가 시작될 때보다 현재 새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섬김이들의 손길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섬김이들이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새로운 준비된 섬김이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새 가족학교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는 새 가족학교가 새 가족들을 위한 교육에만 집중되고, 새 가족들을 위한 섬김이를 교육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 2. 새 가족학교 교육공간 부재

새 가족교육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다. 새 가족학교가 주로 주일 오후시간에 진행되다보니 새 가족학교를 진행하는 장소는 교육관 소년부실을 사용하고 있다. 부서 활동이 지연되게 하면 새 가족학교를 준비함에 차질이 생기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서의 사정으로 인해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장소의 변경되었던 사례도 있다.

큰은혜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상 모든 교육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모든

136) 실제로 새 가족 섬김이를 통해 봉사하고 있는 많은 섬김이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봉사는 개인별 2-3개 정도로 이들이 새 가족 섬김이 만을 위해 집중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공간이 차고 넘치는 현실이다. 예배시간마다 예배공간이 부족하여 문을 열고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공간의 부족함을 호소한다. 먼 곳에서 온 성도들이 잠시 쉴 공간이 부족하고 다음 모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쉴 수 있는 쉼터도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새 가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새 가족학교 교육시간이 되기도 전에 새 가족학교 교육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교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교회를 처음 와서 처음으로 교회내의 교육에 입하는 새 가족들에게 정해진 공간이 아닌 공간, 교육부서의 환경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새 가족들의 입장에선 교회가 우리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는 교회가 새 가족들을 향해 새 가족 양육을 위한 준비된 새 가족교육 준비된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3. 충분한 새 가족학교 기간 부족

현재 새 가족학교는 4주간 진행된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다른 사역들과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보니 새 가족들은 4주 안에 7개의 주제와 간증 그리고 교회 소개에 이르기까지 4주안에 너무도 많은 주제와 이야기들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엔 새 가족들이 교회를 둘러보거나 배운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을 나눌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는 상황으로 교육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고 등록한 새 가족들의 설문조사 내용에도 많은 새 가족들이 제안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새 가족학교 교육시간의 연장이었다. 4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육받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사역들과의 사역을 조율하고, 시간 장소적인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새 가족 교육을 위한 교육시간이 우선 배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4. 새 가족학교 기간 아이 돌봄 프로그램의 부족

큰은혜교회가 속한 지역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보니 새 가족들도 젊은 가족들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가족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동반하게 된다. 실제로 새 가족학교 기간에는 부모들이 새 가족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탁아팀이 아이들을 돌보며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탁아방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연령대도 다양한데,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채 단체로 탁아를 진행하고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탁아방의 시설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빈 공간을 활용하듯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지 않는 공간에서 탁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탁아를 진행하게 될 탁아팀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돌봄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제 6 장

##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큰은혜교회 새 가족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새 가족 정착을 위해 큰은혜교회 새 가족부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실제적인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양육 담당 부서인 큰은혜교회 새 가족부 운영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새 가족부 뿐만 아니라 새 가족 정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큰은혜교회가 교회적인 차원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교회 전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새 가족부 운영 개선 방안

## 1. 새 가족학교 개선 방안

## 가. 새 가족학교 기간 연장

현재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학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4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기간이 짧은 것뿐만 아니라 주별 교육시간도 50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한 주에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별로 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요소들은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료 후 설문조사에서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는데 하나의 제한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새 가족들이 교육 후 제출하는 교육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육의 짧은 기간과 짧은 강의시간으로 인해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새 가족들이 교육만 받고 돌아가게 되어서,

교육에 참여하는 새 가족들이 함께 나눔의 시간이나 교제의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짧은 교육기간으로 발생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질이 높은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 가족학교의 교육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 가족학교의 교육 기간은 기존의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주마다 교육시간도 기존의 50분에서 60분으로 10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 새 가족학교의 프로그램의 평균시간은 5주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본 연구자가 섬겼던 교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5주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 가족학교 소감나누기의 새 가족학교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며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기간을 연장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가족학교 교육 중 2주와 3주차에는 강의 담당자가 각 2명씩이다. 1주에 2개의 강의를 쉬는 시간 없이 연속하여 듣다 보니 집중하기가 어렵고, 다루는 내용이 많다보니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 강의를 각각 나누어 진행하면 보다 유익하겠다고 의견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기간이 연장됨으로 새 가족들의 교육 참여의 시간과 새 가족 섬김이들의 봉사의 기간이 더 연장된다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연장된 시간 만큼 더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하는 새 가족들이 교육의 내용을 수용하고 또한 조별 나눔과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는데 더 용이하며 더 효율적이고 여유로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 나. 새 가족학교 교육진행 방식 개선

기존의 새 가족교육의 교육진행 방식은 주로 교역자에 의한 주도적인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이었다. 교육의 주제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러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렇다보니 처음 교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교회의 교육에 참여하는 새 가족들에게는 강의 중심의 교육 방식이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주입식 강의중심의 교육과는 달리 새로운 교육진행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시간이 되면 바로 교역자에 의한 강의가 진행되고 마치면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후에 나눔이나 교제의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새 가족학교의 교육은 매주 교육이 시작됨과 동시에 10분간 찬양으로 시작한다.<sup>137)</sup> 이때 부른 찬양은 새 가족도 모두 알 수 있는 찬양이거나 따라 부르기 쉬운 곡으로 선정한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건전가요로 널리 알려진 “연가”를 개사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싱글싱글 병글병글” 등의 찬양을 부름으로 같이 공감하게 되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6주간의 찬양시간을 통해 새 가족들은 교회에서 부르는 낯선 찬양에 대해 익숙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배시간에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도 점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매주일 마다 강의가 진행되고 난 후에 교역자들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과 함께 조별로 나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새 가족들은 진행했던 교육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었다.<sup>138)</sup> 이에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

그리고 같은 고민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조원들과 함께 그날 배운 내용을 토의하고 나눔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나눔을 통해 조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많은 이점이 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별 기타활동을 통해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조장을 중심으로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주중에 식사시간을 갖게 됨으로 새 가족들이 더욱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sup>139)</sup> <표 19>은 큰은혜교회 새 가족학교의 새로운 계획표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137) 알파와 달리 찬양 시간은 건전가요 대신 복음송으로 찬양한다. 처음 새 가족들이 쉽게 부를 곡 혹은 경쾌한 곡 등을 부른다.

138) 설문조사 결과 많은 새 가족들이 질의응답시간과 교육이후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처음 듣는 신앙의 교리를 한번의 강의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보다 더 교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용이하다는 이유에서이다.

139) 실제로 조별로 기도제목을 나눔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기도 동역자가 되고 또한 주중에 조별로 만남과 식사 시간 등을 통해 새 가족들은 교회 안에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lt;표 19&gt; 큰은혜교회 새로운 새 가족학교 계획표

| 주차  | 교육 내용                      | 교육시간 | 기타활동                   |
|-----|----------------------------|------|------------------------|
| 1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조별 연락처<br>교환 &<br>사진촬영 |
|     | 1강-교회소개 및 새 가족 교육소개        | 30분  |                        |
|     | 교회투어                       | 20분  |                        |
| 2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
|     | 2강-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 30분  |                        |
|     | 질의응답&조별 나눔                 | 20분  |                        |
| 3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조별 기도제목<br>나누기         |
|     | 3강-믿음이란 무엇인가?              | 30분  |                        |
|     | 질의응답&조별 나눔                 | 20분  |                        |
| 4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
|     | 4강-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 30분  |                        |
|     | 질의응답&조별 나눔                 | 20분  |                        |
| 5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조별로 주중에<br>식사모임        |
|     | 5강-교회생활, 어떻게 할까요?          | 30분  |                        |
|     | 질의응답&조별 나눔                 | 20분  |                        |
| 6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
|     | 6강-교회와 그 중요성               | 30분  |                        |
|     | 질의응답&조별 나눔                 | 20분  |                        |

#### 다. 새 가족 섬김이 학교

새 가족학교의 개선과 동시에 새 가족 섬김이 교육 역시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큰은혜교회는 매주 많은 새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새 가족학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들을 섬길 섬김이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sup>140)</sup> 이에 새 가족학교와 동시에 기존신자들을 대상으로 새 가족 섬김이 학교가 새롭게 개설되고 기존의 신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새 가족학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섬김이 학교는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많은 기존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40) 지금까지의 새 가족 섬김이는 기존의 신자들이 새로운 교육없이 자신의 신앙과 섬김의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섬겨왔다. 그러나 새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새 가족 섬김이들이 늘어나는 새 가족들을 담당하기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고, 또한 새 가족학교를 위한 섬김이들의 전이해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새 가족 섬김이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록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새 가족 섬김이 학교의 1차적 목적은 새 가족들이 새 가족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141)</sup>

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주는 먼저 성경적인 섬김에 대해 깨닫고 기존신자들이 다 시금 처음 새 가족학교를 수료할 당시의 섬김이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상기시킴을 통해서 받았던 사람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 주는 새 가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을 섬김이들에게 안내함으로 실제로 자신들이 섬기는 새 가족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섬김이들이 도와야 할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를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 셋째 주는 새 가족학교에서 실제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섬김의 내용 소개와 섬김의 방법들을 소개하여, 섬김이 학교를 수료 후에 원하는 파트에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sup>142)</sup> 특별히 섬김의 은사가 있는 다양한 부류의 기존의 섬김이들을 통해 섬김의 방법과 기술들을 나누는 시간도 준비한다.

이렇게 새 가족 섬김이 학교를 수료하게 된 섬김이들은 섬김이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자격증에는 새 가족을 섬기고 새 가족이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여 정식으로 등록할 때마다 기록하게 된다.<sup>143)</sup> <표 20>은 새 가족 섬김이교육을 위한 계획표이다.

<표 20> 큰은혜교회 새 가족 섬김이교육 계획표

| 주차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비 고            |
|-----|-----------------------|-------|----------------|
| 1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새 가족<br>섬김이학교  |
|     | 1강-섬김이란 무엇인가?         | 50분   |                |
| 2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수료시<br>새 가족    |
|     | 2강-새 가족학교 교육 소개       | 50분   |                |
| 3주차 | 여는 찬양                 | 10분   | 섬김이 자격증<br>부여함 |
|     | 3강 - 새 가족학교 섬김이 방법 소개 | 50분   |                |

141) 새 가족 섬김이 학교는 다른 섬김을 위한 교육보다는 새 가족학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섬김이학교를 수료한 섬김이들이 다른 사역보다 새 가족학교 섬김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142) 특별히 아이돌봄과 같은 봉사 부분에는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섬김이들을 확보하고 있다.

143) 새 가족 섬김이 자격증을 통해 섬김이들이 새 가족들을 섬겨서 새 가족들이 새 가족학교를 무사히 수료하고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는 과정을 마칠 때마다 섬김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 과정이 5회, 10회가 될 때마다 교회에서 특별 선물을 증정하여 섬김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섬김이 학교를 수료하고 새 가족을 섬긴 섬김이들은 분기별 1회 새 가족 섬김이의 날 행사를 통해 섬김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격려하고, 동시에 이들을 더욱 영적으로 성숙시킬 부흥회와 기도회를 통해 더욱 믿음이 성숙한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라. 새 가족학교 아이 돌봄 프로그램 개발

새 가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새 가족들 중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이다. 현재는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들이 정해진 공간으로 보내져서 아이돌봄을 담당하는 새 가족학교 지원팀에 의해 돌봐지고 있다. 탁아의 개념으로 볼 때 이들은 담당하는 섬김이들을 통해 잘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교육적 차원으로 볼 때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차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교회학교의 담당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새 가족학교에 참여하는 장년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새 가족학교에 참여한 장년 새 가족들의 아이들 역시도 교회학교로 볼 때 중요한 새 가족들이다. 이들을 그냥 탁아 개념으로 돌보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교회학교의 전도의 대상이자 새 가족으로 여기고, 교회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 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sup>144)</sup>

현재 계획으로는 크게 세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기학교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회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역으로 18~36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발달 이론을 통한 성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이다. 어와나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교회학교의 시스템보다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프로그램이다. 또한 교제와 지루한 전달 교육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

144) 실제로 새 가족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그 이유는 교회학교 부서 예배에 대한 안내의 부족과 동시에, 아직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익숙하지 않아 혼자서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가족학교를 통해 교회학교의 교역자나 교사가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아이들을 접하게 된다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학교 부서 예배로 참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 새 가족 아이들에게도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며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정철 영어성경학교 프로그램이다.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 많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영어교육과 성경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철 영어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수개월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6주간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소개되어지고 흥미를 유발시키게 되면, 영어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아이들을 교회학교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마. 새 가족학교 이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회에서 범하는 많은 오류중의 하나는 새 가족들이 오면 몇 주간의 새 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몇 주간의 짧은 교육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료 이후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보니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고 몇 주나 몇 개월이 지나면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던 새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바르게 정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새 가족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교인의 수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요인이다.

그러나 새 가족 정착에 대한 양육은 새 가족학교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여 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간의 시간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새 가족학교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을 주선하고, 6개월 후에는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그리고 주마다 새 가족관리팀에 의한 교육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새 가족학교 수료 후보다 성숙한 신앙훈련을 위한 교회의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와 교회의 다양한 봉사활동들 그리고 교회 내의 다양한 행사에 초대함으로써 새 가족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교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바. 새 가족학교 기타 발전방안

새 가족학교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하면, 첫 번째로 기존의 교육에서 첫 번째 주에 새 가족들은 교회소개에 대한 영상을 통해 교회의 건물과 시설들을 소개받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마치고 교회소개 도우미에 의해 실제로 교회 투어를 실시하게 된다. 실제적인 투어를 통해 새 가족들은 교회 건물을 활용하는데 더욱 유익하며 익숙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영상교육 자료를 통한 결석자들에 대한 교육환경 배려이다. 새 가족의 특성상 처음 6주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 따라서 6주간의 교육 기간 중에 1번의 결석을 허용해주고, 그 교육의 내용의 경우에는 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에 그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새 가족학교를 수료한 가족들이 수료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새 가족학교를 방문하는 홈 커밍데이를 정하여서 새롭게 새 가족학교 교육을 받는 새 가족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신앙의 옛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신앙의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현재는 주일에만 실시되고 있는 새 가족학교 프로그램을 평일 저녁시간에도 개설을 하게 된다면, 주일에 바쁘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많은 새 가족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새 가족 양육을 위한 공간 마련

### 가. 새 가족 휴게실 마련

새 가족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시 머물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처음 예배에 참여했을 때는 새 가족 환영실이나 영접실로 가서 영접을 받으며 그 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설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새 가족학교 등의 교육을 받으며 교회에 머무를 때에는 아직 교회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를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새 가족들을 위해 휴게실에 새 가족 전용좌석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1층 휴게실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 진열되어 있으며,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현재 12개 테이블 68좌석이 준비되어 있지만 교회시설에 익숙한 기존 성



도들이 대부분 이용한다. 12개 테이블 중 2개 테이블은 새 가족 전용좌석으로 지정하여 새 가족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새 가족들은 예배의 전과 후로, 또 교육의 전과 후로 이곳에 머무르며 교회생활에 익숙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새 가족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구입<sup>145)</sup>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 가족 전용 공간을 통해 새 가족들에게 다양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들과 교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는 수유실이나 자모실과 같은 탁아시설도 병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sup>146)</sup>

#### 나. 새 가족학교를 위한 우선 제공하는 공간 마련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다 보니 교회내의 교육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장소를 옮겨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교육시간 전후로 다른 활동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육 진행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교육 후의 나눔의 시간을 갖는 데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새 가족은 교회의 가장 먼저 배려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더 준비되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새 가족들도 더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새 가족을 전도할 때 우리는 교회의 소중한 손님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이들을 맞이할 장소적인 준비함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역과 활동들을 조정하여 매주일 마다 진행되는 새 가족학교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큰교회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전용 공간이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사역의 우선순위를 새 가족에 둔다면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다른 모든 사역은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우선순위와 배려가

145)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쉼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교회 인근 3층의 단독건물을 매입 어르신 전용공간을 마련해 드렸다. 이곳에는 전동안마의자가 구비되어 있고 일정한 간식을 제공한다. 청년사역부실의 요구가 있어 활용되지 않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냉난방시설, 자동커피머신, 흡시어터 구비하여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도 성도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기로 하여 건물 확보를 위해 교회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46) 현재 많은 교회들은 수유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이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새 가족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있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 새 가족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 가족학교가 진행되기 이전 시간부터 미리 온 새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도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새 가족들은 편안하게 새 가족학교에서 준비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 교회활동 안내 부스 마련

교회가 아무리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교인이 몰라서 참여할 수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결코 좋은 프로그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현재 큰은혜교회에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과 참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새 가족들의 참여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 이유는 물론 아직 새 가족이어서 교회생활에 참여하기엔 부담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교회 내에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기존의 신자들의 경우에는 교회 주보를 통해서,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로비에 있는 팸플릿 등을 통해서 교회내의 여러 행사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 가족들은 교회생활에 익숙지 않다보니 이러한 광고와 안내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새 가족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많은 기존 신자들 역시도 무심코 지나치면 알지 못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회내의 교회활동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교회활동 안내 부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곳에서는 교회학교의 각 부서에서 장년부에 이르는 세부적인 모임과 활동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교역자를 중심으로 안내팀이 편성되어서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 3. 새 가족 중심의 환경개선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만들어 가며,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예수

님의 모습에 본받아 낮은 자를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15장 1-2절에서 강조했듯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배려함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에 등록하고 익숙한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교회에 기존의 신자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새 가족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신자들이 새 가족들을 향해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옳바르다고 할 수 있다.

새 가족 섬김이들과 새 가족학교를 통해 교회가 새 가족들을 섬기는 모습만을 볼 때 큰은혜교회는 참으로 새 가족을 섬기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교회생활에서 많은 부분은 새 가족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 새 가족 입장에선 마치 교회가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점이다. 또한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새 가족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이러한 배려나 섬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 가족학교를 수료했거나 새 가족학교를 수료하지 않았을지라도 정식으로 등록한 새 가족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적어도 1년의 시간동안은 새 가족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

교회식당에 새 가족을 위한 전용자리 마련, 교회 주차장에 새 가족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지나친 경쟁을 통해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기에 이러한 사소한 배려에도 새 가족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러한 새 가족들을 향한 교회와 기존의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전해지게 될 때 새 가족들은 보다 더 쉽게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새 가족을 섬기는 일은 새 가족부만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되며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온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새 가족을 배려하고 있으며 새 가족 사역을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비전으로 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큰은혜교회는 새 가족을 위하여 교회식당의 전용자리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교회식당은 총 600여 좌석인데 이중 40좌석을 확보한다. 40좌석 위에는

새 가족 전용좌석이라는 안내 쪽말이 있고, 새 가족이라는 명찰을 착용한 새 가족만이 앉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성도들은 앉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권면을 드리고 있다. 주차공간은 본당, 교육봉사관, 교회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인근 인현초등학교, 과학공원,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구청의 허락 하에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본당 건물과 가장 가까운 본당 앞 주차장에 30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이 공간에 장애우, 새 가족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만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 제 2 절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

### 1.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

현재 큰은혜교회에 나오는 새 가족들은 전도에 의해 출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나 대중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실제로 큰은혜교회는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20회가 넘는 보도자료가 대중매체에 제공되고 있다.<sup>147)</sup> 최근 들어 많은 대형교회들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대중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은혜교회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주로 대중매체에 소개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많은 새 가족들이 본교회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가 기존의 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게 되며, 교회를 출석하는 일원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보니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매년 진행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이웃 교회들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은 목적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나라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나눔을 주

147)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엔 13회, 2009년엔 10회, 2010년엔 8회, 2011년엔 6회, 2012년엔 6회, 2013년엔 현재(9월)까지 21회에 걸쳐 대중매체에 노출되고 있다.

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수년간 교회 생활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성숙한 교인들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큰은혜교회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새 가족교육을 마치고 정식교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가족들도 등록하자마자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새 가족들은 새 가족교육을 수료하는 도중에도 교회의 다양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른 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섬기는 외부에서 진행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교회의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정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큰은혜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대외적으로 알려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도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역지로 만들어졌다면 이를 내세우고 홍보하는데 많은 문제가 따르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역에 소개된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지역사회에 교회를 알리고 새 가족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큰은혜교회는 교회 자체적인 홍보팀과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해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교회와 세상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과 이미지가 새 가족들이 큰은혜교회를 찾고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가진 교회 중심의 선교관과 교회론적인 신학의 부재에서 온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의 선교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품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관심은 세상보다는 오직 교회 자체의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이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과 교회를 세상이 아닌 오직 교화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많은 대형교회의 문제의 중심에는 이러한 교회중심의 선교관과 교회론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자신의 교회 성장만을 위한 교회성장 중심주의가 일으킨 문제들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게 옳바르지 못한 일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하나 된 교회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큰은혜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중매체들을 통해 보여지고 전해지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큰은혜교회의 사역들이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사회복지재단 설립이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장이 마련되게 되면 교회는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역사회를 섬김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를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제 7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요약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을 제시함으로 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게 될 것 인지를 간략히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 가족에 대한 이해와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이해로 분류하여 접근을 시도했다. 먼저 새 가족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와 다양한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정의를 살펴봄으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새 가족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선 이러한 새 가족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살펴 고, 이러한 새 가족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새 가족 양육에 대한 정의와 양육의 목적을 정의하면서 새 가족 양육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며 접근해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새 가족 양육프로그램 중 4가지를 소개하고 양육프로그램들의 기원과 의미와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새 가족 양육에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먼저, 알파코스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원으로 제자화의 과정과 전도에는 장점이 있으나, 양육의 과정에서는 통합적인 신앙과 통합적인 양육으로 이어가는데 단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바나바 사역은 새 가족들로 하여금 교회의 중직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교제를 할 수 있고, 일대일의 방식을 통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대일 만남을 통해 교육이 아닌 친교적 모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교육에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세 번째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은 새 가족들에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단계별 신앙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엠마우스 양육 프로그램이 아직 널리 소개되지 않았고, 새신자 교육보다는 기존의 신자를 위한 교육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은 양육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처음 새 가족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의 부분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4장에서는 새 가족 정착 사역의 사례 검토를 위해, 현재 새 가족 양육을 통해 새 가족 정착 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3개의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MS 4steps라는 사역 시스템을 통해 양육을 실시하며 특별히 새생명반을 통해 새 가족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신앙교회의 새 가족 양육 사역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새 가족부를 강화하며 담임목사가 직접 새 가족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선창교회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특별히 선창교회는 새 가족 교육내에 바나바팀을 조직하여 새 가족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함으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비교분석하고 수년간의 실험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크로스 양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교회 전체의 양육 시스템을 통해 온 교인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한 예능교회의 새 가족 양육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큰은혜교회의 소개와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큰은혜교회의 과거 역사와 배경 그리고 교회의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큰은혜교회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교회의 비전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큰은혜교회의 새 가족부가 사역하는 새 가족 정착 사역의 현재의 사역 모습을 살펴봄으로 큰은혜교회 새 가족 정착의 상황과 정착 교육에 따르는 제한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보다 나은 새 가족 정착을 위해 큰은혜교회가 앞으로 보안하고 발전시켜야 할 교회의 새 가족부의 양육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새 가족학교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는 새 가족들을 직접 담당하고 양육하게 될 새 가족부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 가족 정착을 위해 교회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추구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제 2 절 제언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최근 10년간 침체와 위기를 겪게 된 것은 분명,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있던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부재와 이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의 지나친 급성장을 보며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성장의 주된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나타난 한국교회의 성장의 주된 요인은 통전적인 교회성장이 아닌 수적인 성장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는 현재에 찾아온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보완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숫자적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교회의 질적인 성장에 소홀히 여겼던 점들에 대해 반성하며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주역인 평신도들을 양육하는데 앞으로의 교회 교육은 더욱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통한 새 가족 교육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양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주어지고 짜여 질지라도 그 프로그램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에는 최선의 교육 방법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 교육방법은 또 다른 변화와 개선을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양육 시스템이 새롭게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찾아오는 새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양육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원으로 수용하게 될 때 밝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고용수. “새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교회*. 1997년 10월호.
- 김기현. “새 가족 사역을 통한 교회활성화 방안.” 목회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7.
- 김덕수. *멘토링 핸드북*. 서울: 아리울, 2009.
- \_\_\_\_\_. “새 신자를 알면 새 신자 정착이 보인다.” *교회성장*. 2009년 3월호.
- 김도일.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문서선교회, 2006.
- 김명남. *착한 사람 바나바*.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2.
- \_\_\_\_\_. *교회를 부흥시키는 바나바*.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3.
- \_\_\_\_\_. *바나바 사역교재*.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3.
- 김춘실. *새 신자를 알아야 새 신자를 키운다*. 서울: 쿰란출판사, 1999.
- 김혁.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류재석. *멘토링의 원리와 현장적용방법*.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 \_\_\_\_\_. *성경 그리고 멘토링*. 서울: 이담, 2010.
-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도, 2000.
- \_\_\_\_\_. *새 신자양육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제네시스 21, 2004.
-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9.
- \_\_\_\_\_.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 서울: 나침반, 2006.
- 박안석. *청소년 멘토링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박원영. *새 가족 탄생교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3.
- 박종기. *새 신자를 정착시켜라*. 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8.
- 백진식.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본 알파코스에 관한 비평적 연구.” 세계선교대학원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6.

- 새 가족목회연구원, *새 가족목회 세미나*. 서울: 새 가족목회연구원, 1997.
- 신재승.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 가족 양육.”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엄순희. “새 신자 바로보기” 교육목회. 2000년 봄호.
-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1.
- \_\_\_\_\_.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은누리 일대일 양육사역팀.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5.
- 예능교회. *교회 35년 발자취*. 서울: 모레커뮤니케이션, 2012.
- 이만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 서울: 한국목회사역연구소, 2010.
- 이용남. *교회성장을 위한 새 신자 목회*. 서울: 도서출판 그린, 1995.
- \_\_\_\_\_. *새 신자목회 (상)*. 서울: 도서출판 돌곶이, 2000.
- 이정희.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이호형. “새 신자 교육의 뿌리 찾기.” *교육목회*. 2004년 봄호.
- 장세운. *봉천제일교회 50년사*. 서울: 도서출판 한천, 2005.
-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 한국 엠마우스. *엠마우스 믿음의 길 편*.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9.
- \_\_\_\_\_. *엠마우스 믿음의 길 편 리더 가이드 편*.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9.
- \_\_\_\_\_. *엠마우스 소개서*.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2. 번역서적

- Bobb Biehl. *펜토링*. 김성웅 역. 서울: 디모데, 1997.
- Clinton, J. Robert.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3.
-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Green, Michael. *알파코스와의 만남 그 이후*.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 Gumbel, Nicky. *인생의 의문점들*.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 \_\_\_\_\_. *알파 시작하기*.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_\_\_\_\_. *알파코스 운영방법*.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2003.

- Kuhne, Gary W. *개인적 새 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 Margo, Murry. *멘토링 오래된 지혜의 현대적 적용*. 이용철 역, 서울: 김영사, 2005.
- Mcintosh, Gary and Glen Martin. *새 신자를 찾아라 지켜라*. 김명남 역, 서울: 바나바 교육원, 2000.
- \_\_\_\_\_. *전도정착 완전정복*. 김진기 역. 서울: 콤파출판사. 2008.
- Moore, Waylon B.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 Sherrill, Lewis Joseph. *기독교 교육의 발생*. 이숙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Smart, J.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Smith, Ron. *새 신자 양육지도*.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3.
- Wright, Walter C. Jr, *관계를 통한 리더십*. 양혜정 역.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2.

Vita of  
Youngkuk Kim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Amazing Grace Presbyterian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22, 1973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jin Jung  
 Home Address: 17-7, Nakseongdae-ro 3-gil, Gwanak-gu,  
 Seoul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22, 2004

Education:

Th. B. :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6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4

Personal Experience:

11/2009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Amazing Grace Presbyterian Church,  
 Seoul  
 10/2007 to 10/2009: Assistant Pastor  
 of Morningcome Land Church, Seoul  
 10/2004 to 09/2007: Assistant Pastor  
 of Hongic Presbyterian Church, Seoul